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학석사 학위논문

천문학자 안톤 판네쿱의
노동으로서의 과학관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학과

이 승 주

천문학자 안톤 판네쿱의 노동으로서의 과학관

지도교수 이 두 갑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학과
이 승 주

이승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원장 임 종 태 (인)

부위원장 이 두 갑 (인)

위원 천 현 득 (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안톤 판네쿱의 과학관의 중요한 부분이 과학을 하나의 노동으로, 과학적 지식을 그 노동의 산물로 간주한다는 점임을 『철학자로서의 레닌』을 비롯한 판네쿱의 저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판네쿱은 요제프 디츠겐의 인식론 철학을 계승하여 연속적이고 변화무쌍한 현상들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인간의 정신이 의식적으로 개입하여 추상화된 개념들을 생산해내고 그 개념들을 체계화하여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정신노동을 과학적 실천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판네쿱이 이와 같은 과학관을 수용하고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정체화했을 당시, 그는 네덜란드 천문학계의 소장파로서 고전적 위치천문학과 현대적 천체물리학 사이의 패러다임 경쟁에서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디츠겐의 과학철학은 이러한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1900년대에 정립된 과학관을 바탕으로 판네쿱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들에서의 입장을 결정했고, 자연과학자로서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지향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얻었다. 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판네쿱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관념은 과학지식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노동하여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학지식의 권위를 상대화하고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어 : 안톤 판네쿱, 요제프 디츠겐, 마르크스주의 과학관, 과학과 노동, 정신노동

학 번 : 2020-26171

목 차

1. 서론	1
1.1. 선행연구 검토	2
1.2. 방법론	8
2. 천문학자 판네퉁과 천체물리학 혁명	12
2.1. 19세기 말-20세기 초 천문학의 동향	12
2.2. 청년 천문학자 판네퉁의 연구 관심사와 고뇌	15
2.3. 판네퉁의 마르크스 및 디츠겐 수용	18
2.4. 소결	21
3. 마르크스주의자 판네퉁의 정치적 입장	23
3.1. 당대 마르크스주의 운동권의 사상적 지형도	23
3.2. 판네퉁의 제2인터내셔널 내부 논쟁 참여	26
3.3. 소결	31
4. 과학노동자 판네퉁: 과학은 하나의 노동이다 ...	33
4.1. 판네퉁의 ‘중간계급 유물론’ 비판	33
4.2. 『철학자로서의 레닌』: 판네퉁의 레닌 비판	41
4.3. 정신노동의 도구를 생산하는 정신노동으로서의 과학 ..	48
4.4. 소결	55
5. 결론	57
참고문헌	63
Abstract	69

그림 목 차

[그림 1] 1908년의 안톤 판네쿱	iv
[그림 2] 요제프 디츠겐	v
[그림 3] 『철학자로서의 레닌』 영어판 표지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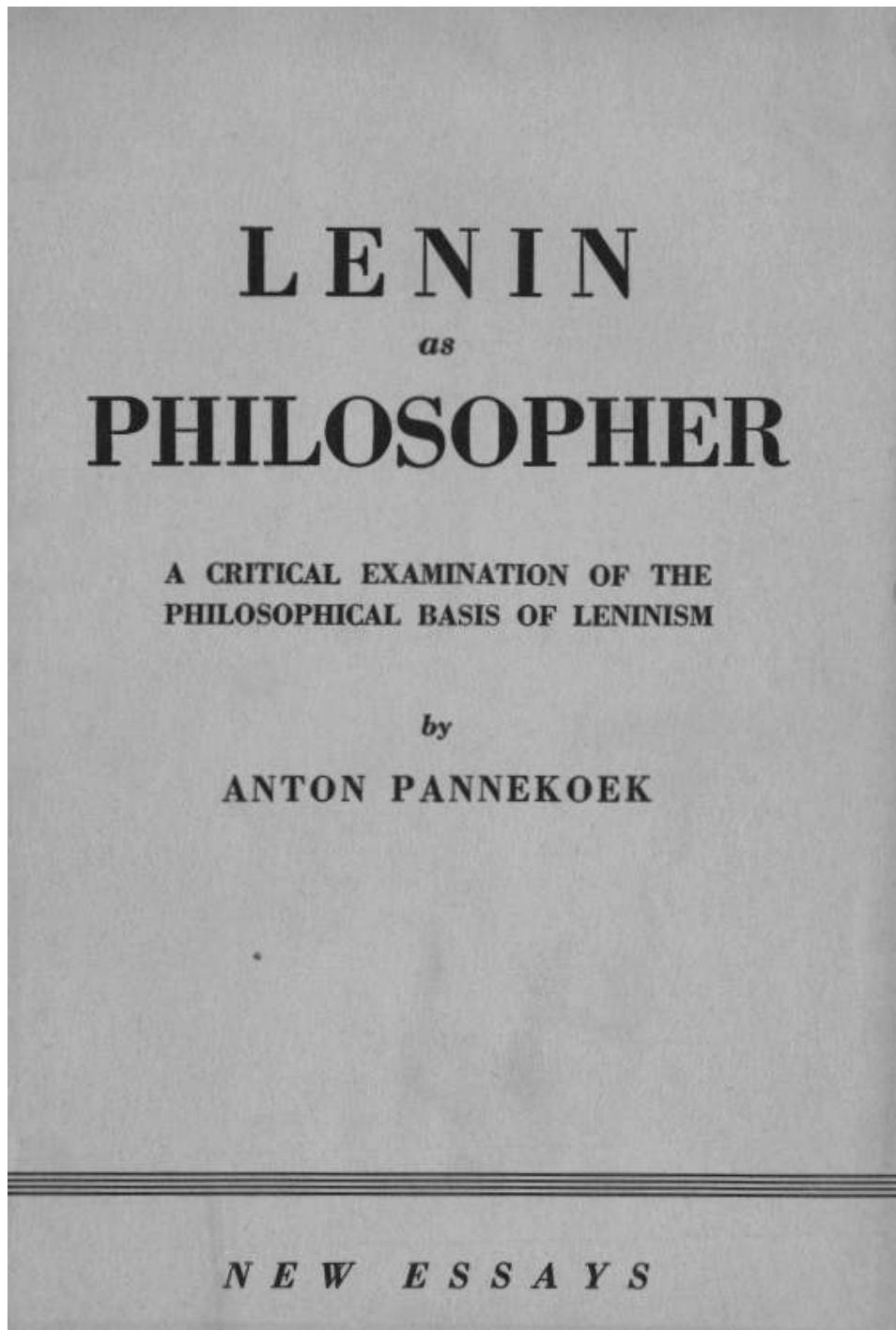


[그림 1] 1908년의 안톤 판네쿱 (국제사회사연구원[IISG] 소장자료¹⁾)

1) <https://resolver.kb.nl/resolve?urn=urn:gvn:IISG01:ADV10552402>



[그림 2] 요제프 디츠겐(Dietzgen 1906b: 2)



[그림 3] 『철학자로서의 레닌』 영어판 표지(Pannekoek 1948)

1. 서론

이 논문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 혁명가였던 안톤 판네쿵(Anton Pannekoek, 1873 - 1960)의 과학관을 그의 저서 『철학자로서의 레닌』(1938년)을 비롯한 텍스트를 통해 살핀다. 이를 통해 총체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한 과학자가 과학에 대한 독자적인 개념화를 추구한 하나의 사례를 상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판네쿵은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의 관계, 과학과 과학자의 관계, 과학의 본질에 대한 규정 등에 있어서 당대의 관념론이나 자연과학적 유물론은 물론 레닌을 통해 정통화된 공산당식 과학관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견해를 발전시켰다.

판네쿵은 학생 시절부터 천문학을 전공해서 교수 지위까지 오른 전문적 과학자였다. 과학자로서 그의 연구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왕성하고 탁월했다. 70년간 판네쿵이 저술한 천문학 논문과 책은 136편에 달하며(van den Heuvel 2019: 47), 그는 천문학의 패러다임이 위치천문학에서 천체물리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현대천문학의 정립에 기여했다.

동시에 판네쿵은 레닌에 의해 정립된 소련식 공산주의 노선에 반대하여 평의회공산주의(council communism)라는 별개의 공산주의 조류를 주창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가이기도 했다. 판네쿵의 평의회공산주의 이론은 공산당이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조직이 노동계급 대중에 대하여 전위성이나 지도성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전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재적인 실천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판네쿵은 작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공론장인 “평의회(council)”만을 정당하고 건전한 사회변혁 및 사회조직의 단위로 간주했다.

판네쿵의 과학사상의 핵심은 과학지식을 과학자들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노동의 산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그의 정치사상과 긴밀히 연결되고, 특히 레닌에 대한 비판에서 그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다.

1.1. 선행연구 검토

사회주의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판네쿱의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 판네쿱의 출신국인 네덜란드의 왕립예술과학한림원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의 결과물로 2019년 출간된 『안톤 판네쿱: 과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들』(Tai et al. 2019)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서의 판네쿱과 천문학자로서의 판네쿱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판 던 회벨(Edward P. J. van den Heuvel)과 다비트 바네크(David Baneke)와 로버트 스미스(Robert W. Smith)의 논문들은 각각 천문학자로서 판네쿱이 네덜란드에 “현대적 천체물리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구자적 천문학자였음을 천체물리학 혁명이라는 당대의 학문적 맥락과 동시대 천문학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헤릿 푸르만(Gerrit Voerman)은 판네쿱은 원칙주의적인 이론가로서 그의 “과학자적 방법론과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직함(socialist straight-forwardness)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며, 그가 이념적 순수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한 사람에게 마치 과학자가 “틀린” 것을 부정하듯이 혹독했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판 베르켈(Klaas van Berkel)은 판네쿱이 여러 차례 정치적 좌절을 겪으면서 “자연과학과 사회주의를 별도의 정신적 칸막이에 분리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정치와 사회에 비하여 “순수한” 자연을 회귀하는 “유토피아주의”로써 자연의 숭고함, 그리고 인류 역시 숭고해지는 진보를 갈망하여 내면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두 논문은 판네쿱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이력을 통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으나, 저자들이 결론으로서 제시하는 판네쿱의 ‘원칙주의’나 ‘순수함’과 같은 것들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르트 판 데어 스텐(Bart van der Steen)은 판네퉁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 “1.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음을 ‘증명’한 과학”, “2. 역사발전을 분석하는 방법론”, “3.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관”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했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순환논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판네퉁이 사회주의가 임박했다는 견해를 포기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설명력을 인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결정론은 부정한 것으로서 모순적이다. 판 데어 스텐은 판네퉁이 노동계급 출신으로 독학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요제프 디츠겐(Josef Dietzgen)의 지식이론을 받아들여 이 모순을 봉합했으나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보면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왜 판네퉁에게 사회주의가 과학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결론내렸다.

바르트 카르스텐스(Bart Karstens)는 해왕성 발견사에 대한 판네퉁의 과학사 연구를 분석했다. 판네퉁은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해왕성 연구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도 충실했던 이유를 프랑스의 정치적 후진성에서 찾았다. 프랑스는 봉건계급이 아직 남아 있어서 유산시민계급이 봉건계급에 대한 투쟁의 무기로서 과학을 동원해야 했던 반면에, 유산시민계급이 정치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영국에서는 그럴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르스텐스는 판네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이 시기의 부르주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기서 판네퉁이 분석한, 과학이 유산계급의 무기가 되는 현상은 후술할 “중간계급 유물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판네퉁은 그것을 몹시 부정적으로 보았다. 판네퉁은 유산시민계급이 봉건계급을 완전히 타도하면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시들어버리며, 해왕성 발견에서의 영국은 그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산시민계급이 봉건계급의 타도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진보를 담지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판네퉁만의 이단적인 주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카르스텐스의 논의는 약점이 있다.

제니퍼 터커(Jennifer Tucker)와 대소강(戴少康), 그리고 오마르 나심(Omar W. Nasim)은 판네키의 천문학 연구의 실천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를 찾아내고자 시도했다. 터커는 작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수평적인 노동자평의회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직접민주주의를 조직하자는 판네키의 평의회주의 사회조직론과 천문학 데이터 수집에 아마추어 천문관측가들을 참여시키자는 제안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두 가지 실천 사이의 피상적 유사성을 보여줄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이르지 못했다.

대소강은 19세기 천문학이 천문학자들 개인의 정신이 육안관찰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것을 공유한 천문학자로서 판네키가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판네키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인식을 분석하고 종합할 능력이 있지만, 그 인식능력은 생산양식과 계급관계, 그리고 인간 능력의 한계 같은 외부의 물적 요인에 의해 제한되므로, “우리에게 보이는 은하수의 상”, 즉 은하수의 주관적 외관 역시 “생리학적·심리학적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 광학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Tai 2019: 223).

나심은 판네키가 천문학에 사진술을 도입한 선구자 가운데 한 명이면서도 손그림 스케치를 끝까지 연구방법론으로서 병행한 것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판네키는 손을 사용한 노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엥겔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손을 이용한 수작업(handwork)을 중시했고, 과학자들 역시 머리뿐 아니라 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화학이나 지질학처럼 손에 잡히는 대상을 연구하는 분야뿐 아니라, 자신이 종사하는 천문학 역시 기록부터 소묘, 기자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작업이 개입한다는 것을 판네키는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수행했다. 나심에 따르면 판네키는 “과학자체를 노동의 한 형태로 보았”고, 과학에 수작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Nasim 2019: 255).

이 논문집은 이상과 같이 판네퉁의 두 정체성이 연결되는 다양한 정황증거와 상관관계들을 보여주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만족스럽게 보이지는 못했다. 몇몇 연구는 오히려 판네퉁의 두 정체성의 조화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그것을 만족스럽게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천문학계에서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van den Heuvel 2019: 38)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과학자라고 경원시 당하는(Voerman 2019: 68) 이중고를 겪은 판네퉁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두 자아를 분리하기를 강요받았기 때문이다(van Berkel 2019: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네퉁이 그 내면에서는 두 정체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면 그 단서는 ‘과학’이 무엇이나는 판네퉁의 견해, 즉 과학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판 데어 스텐은 “훈련된 자연과학 종사자였던 판네퉁이 사회주의의 과학성을 이렇게까지 확신한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van der Steen 2019: 145). 그러나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관념은 ‘훈련된 자연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지 않다. 판네퉁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학관이 동시대 대다수의 과학자들과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판네퉁이 생각한 ‘과학적 사회주의’가 무엇이었고 왜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네퉁이 생각한 ‘과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마르 나심은 판네퉁이 과학을 노동의 한 형태로 보았고 육체노동을 과학의 실천에 포함시켰다고 논했다. 그렇다면 판네퉁은 정신노동으로서의 과학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 관념을 세우는 데 있어서 판네퉁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디츠겐 인식론은 어떤 것이고 판네퉁은 그것을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정당화했는가? 나심의 연구가 (육체)노동을 과학의 실천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판네퉁을 분석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정신)노동의 일종으로서 과학을 개념화하려 했던 판네퉁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판네텔의 과학관을 탐구하는 의의는 그 개인의 사상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적인 과학 개념과 과학철학이 형성되어가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서 판네텔의 과학사상 또한 그 시대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판네텔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과학적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그것과 과학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을 제각기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스가 과학,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생전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가 『자연변증법』과 같은 시도를 남겼지만, 미완에 그쳤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한 다양한 사조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분화되던 이 시기에, 과학이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문제는 이 분화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예컨대 카우츠키(Karl Kautsky)나 플레하노프(Georgi Plekhanov)와 같은 중앙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식물유전학자 휘호 더프리스(Hugo de Vries)의 돌연변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막심 미쿨락(Maxim Mikulak)이 보여준 바 있다(Mikulak 1970). 이들 중앙파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일종의 진화론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자본주의 친화적인 생존경쟁 원리를 제거하고 싶었고, 그 대안으로서 돌연변이에 주목했다. 하지만 판네텔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사회주의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시대는 마르크스주의 운동권 밖에서도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재조직할 것인가”(이정인 2012: 288)에 대한 논의가 지식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시기였으며, 이 과정에 일부 자연과학자들도 참여했다. 감각만이 실재한다는 급진적 경험론을 제창한 것은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였고, 생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는 현상과 실재를 구분하여 과학은 현상에 국한시키는 칸트 인식론으로 돌아가자는 신칸트주의(Neo-Kantianism) 흐름의 탄생의 중요한 참여자였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상이 자신들이 종사하는 과학——마흐의 경우 19세기 물리학(고인석 2010: 300-302), 헬름홀츠의 경우 19세기 생리학, 특히 시력과 인지능

력에 관한 연구(Biagioli 2016: 2-12)——의 지식 및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고 여겼다. 천문학자 판네키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측면을, 즉 판네키가 종사했던 천문학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판네키의 과학사상과 어떻게 관계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동시대 담론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으며, 그 상호작용은 때로는 우호적인 수용으로, 때로는 적대적인 대립으로 나타났다. 3절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수정주의자들은 신칸트주의의 실재와 현상의 이원론을 받아들여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추구했다(Steger 1992: 651). 반수정주의자들은 이를 혁명이라는 당위와 함께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맹렬히 공격했다. 러시아 볼셰비키당 당내에서 보그다노프(Alexander Bogdanov)를 비롯한 마흐주의 경향을 진압하기 위해 레닌이 직접 집필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도 이러한 대립의 대표적인 사례다. 때로는 신경질적이기도 했던 이런 반응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과학과 지식에 대한 동시대의 다른 담론들의 추이가 자신들의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그 철학적 토대인 ‘유물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플레하노프와 레닌, 그리고 스탈린을 거쳐 소련에서 정식화된 과학론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절대화하고 자연과학마저 이 체계에 종속시킨 것(이정인 2012: 250)은 그 대응의 한 귀결이었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서는 레닌과 스탈린을 계승한 입장이 과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 대한 반박될 수 없는 절대적 원리로서 헤게모니를 얻었다. 스탈린 사망 이후의 소련 지도부도 스탈린 개인에게 책임을 돌렸을 뿐, 이론이나 노선에 있어서의 반성은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대결하고 동구권에서 반소 투쟁들이 일어나는 정세 속에서 당은 여전히 오류 없는 존재로 남아야 했고,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논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이정인 2012: 251). 한편 비공산권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 이러한 단절과 괴리는 소련의 과학자들에게 리센코주의적 탄압이 가해지는 원인으로

도 작용했다. 예컨대 로렌 그레이엄(Loren Graham)이 보여준 바, 1930년대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마흐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이신론적 종교관을 피력한 결과로 보리스 헤센(Boris Hessen)을 비롯한 소련 물리학자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Graham 1985).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20세기 초엽까지의 유럽 사상계는 사회주의와 과학의 관계는 물론, 과학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경합하는 장이었다. 판네퉁의 과학사상은 그러한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실천적이면서도 교조적이지 않은 대안적 과학관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판네퉁이 독특한 점은 마흐의 긍정적 의의를 일부 인정하고(실증주의와 유사한 측면), 자연과학을 통해 사회주의 또는 반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지양하면서도(신칸트주의와 유사한 측면), ‘노동’을 과학의 핵심적 본질로 규정함으로써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자로 남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네퉁의 과학관은 판네퉁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 개념을 둘러싼 당대의 사상적 상호작용, 과학과 사회주의의 관계, 과학과 노동의 관계라는 넓은 주제들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2. 방법론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판네퉁의 저서 『철학자로서의 레닌』을 제안하려 한다.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판네퉁이 노동자, 민중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며 레닌과 반목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판네퉁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와 사유로 레닌을 비판했는지, 그 주요 텍스트인 이 책에 대해 충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는 『철학자로서의 레닌』을 비롯하여 판네퉁이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저술한 여러 텍스트를 분석했다.

『철학자로서의 레닌』은 두 가지 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가로서 판네퉁이 제기한 레닌 비판의 결론에

해당한다. 둘째로 판네킨이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한 것이 1900년대 러시아 마흐주의 논쟁에서 레닌이 취했던 입장에 대한 과학철학적 재검토와 비판이었다는 점이다. 그 자신이 천문학자였던 판네킨은 과학의 실천은 실제로는 레닌의 설명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 위에서 레닌에게 비판을 가했다.

판네킨은 과학철학적 입장에서 출발해서 레닌의 러시아혁명은 유산자적 시민혁명과 비슷한 것이고, 소련 체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놀라운 결론에 다다랐다. 필리프 부리네는 판네킨을 비롯한 비(非)소련 좌파공산주의 경향에 관한 포괄적 연구서인 *The Dutch and German Communist Left (1900 - 68)*에서, 판네킨이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제기한 레닌 비판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적확했지만, 거기에 정치적 함의를 부여하고자 한 기획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하고 정치적 실천성을 가지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Bourrinet 2017: 364-379). 그러나 본 논문의 초점은 판네킨의 정치적 성패, 또는 판네킨의 레닌 비판이 얼마나 적절한지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분석의 목표는 판네킨의 과학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이며, 『철학자로서의 레닌』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피력한 텍스트라는 관점으로 판네킨의 과학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우선 제2절에서는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천체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19세기 이전까지의 고전천문학과 패러다임 경쟁을 벌이던 당대 천문학계의 상황을 살펴본다. 청년 천문학자 판네킨의 연구 관심사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인 천체물리학을 지지하는 쪽에 있었고, 동시기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판네킨은 디츠겐의 인식론 철학에서 천체물리학 패러다임에 유리한 논리를 발견했다.

제3절에서는 판네킨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서 독일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제2인터내셔널에서의 논쟁에 참여한 맥락을 살펴본다. 당시 마르크스주의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 마르크스가 예측한 혁명이 임박할 것으

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문제를 쟁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 논쟁들에서 판네퉁은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 즉 예측되는 혁명의 필연성을 옹호하며, 동시에 그 혁명을 수행할 노동대중의 혁명적 자발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제4절에서는 『철학자로서의 레닌』을 중심으로 판네퉁의 과학관을 상술한다. 『철학자로서의 레닌』은 판네퉁이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 대하여, (판네퉁 자신이 생각하는) 실제의 과학은 레닌이 말한 것처럼 과학적 개념의 실재성을 절대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레닌의 과학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한 책이다. 이 과정에서 판네퉁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을 비롯한 과학적 사례들을 자신의 주장을 예증하는 사례로서 거론했다.

본 논문은 2절과 3절에서 제시된 과학적·정치적 맥락들이 판네퉁에게 특정한 과제들을 부여했음을 보일 것이다. 판네퉁은 천문학자로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의 옹호자였기 때문에, 학계의 패러다임 경쟁 상황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패러다임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는 당대의 중요한 이론적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했다. 판네퉁은 요제프 디츠겐의 과학철학을 계승하여 과학을 지식이라는 산물을 인위적으로 생산해내는 노동의 일종으로 개념화하는 과학관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노동의 산물인 과학적 개념·자연법칙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으로서 만들어내고 개선해나가는 것이자, 인간의 정신노동에 다시 투입되어 그 노동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로서 보았다. 이와 같은 정신노동관·과학관은 판네퉁이 과학과 관련된 각론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 거의 평생 일관되게 나타났다.

과학을 정신노동으로 정의한 판네퉁의 과학관과 그것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더욱 명확히 이해한다면, 판네퉁에 관한 네덜란드의 선행연구들의 논지에 대한 보충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카르스텐스는 판네퉁이 과학을 역사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본 것을 물질이 아닌 “의식”을 중요시한 것이므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변칙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했는데, 과학을 노동으로서 개념화하면 노동을 역사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으

로 보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워진다. 푸르만과 판 베르켈의 연구에 대해서도, 판네쿱이 “틀린”, “불순한” 것으로 생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관의 기준이 무엇인지의 단서를 그의 과학관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2. 천문학자 판넬과 천체물리학 혁명

2.1. 19세기 말-20세기 초 천문학의 동향

천체물리학(astrophysics)은 천구상에서의 천체의 역학적 운동을 다루던 기존 천문학의 관심사를 넘어서, 천체를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 다루어 그 물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천체물리학은 21세기 현재 대학에서의 천문학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대천문학(modern astronomy)과 동의어와 다름없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천체물리학 저널』(Astrophysical Journal)을 창간한 미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킬러(James Edward Keeler)가 1897년에 내놓은 테제에 따르면, 고전천문학이 천체가 “어디 있는지(where)”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면, 천체물리학은 천체가 “무엇인지(what)”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것 [천체물리학]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분야로서 정당하게 분류된 천문학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학 및 물리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그것은 천체들의 공간 속에서의 위치나 운동보다, 천체들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그것들이 *어디에(where)* 있느냐보다 그것들이 *무엇(what)*이냐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옛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러한 주제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시대에는 그러한 시도가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Keeler 1897: 272, 기울임 강조는 원문).

또한, 킬러는 천체물리학에서 중요한 임무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이미 알려진 법칙”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견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천문학의 경계 밖에 있는 다른 학문, 특히 분광학과의 학제적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천체물리학에서는 물리적 천문학(physical astronomy)과는 상당히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극단적으로 단순한 법칙들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설명해내야 한다. 여기에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 훈련(discipline)이 필요하며, 옛 천문학에서의 방법들을 훈련하는 것이 천체물리학 작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준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화학과 생물학 같은 과학들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관찰되는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이미 알려진 법칙들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미지의 법칙들과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도 천체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다(Keeler 1897: 277).

킬러가 이 글에서 천체물리학과 대립되는 맥락에서 “옛 천문학(자)”, “물리적 천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이 글이 쓰인 19세기 말엽은 아직 천체물리학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계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이나 존 나리엔(John Narrien)을 비롯한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물성을 가진 대상으로서 연구하지 않고, 다만 천구 위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거나 운동할 뿐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에게 천문학이란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을 추적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에 맞추어 환원시키는 것이었고, 불박이별들은 그 운동을 추적·기록하는 데 필요한 배경의 그리드(grid)에 불과했다(Smith 2019: 111-112). 이것은 계산의 수단이 뉴턴역학이었을 뿐, 연구의 목적은 전근대 천문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19세기까지의 천문학은 역법의 계산과 천체의 위치와 운동 계산을 비롯한 역학적 연구가

주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혀 있었고, “망원경에 화학·물리·전기 장치들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Keeler 1897: 277) 학문적 보수파들은 19세기 말엽에 등장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의 천체물리학의 등장 에 저항하고 있었다.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서구 천문학계 는 구면위치천문학이라는 고전천문학과 천체물리학이라는 현대천문학 사 이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었다.

천체물리학 혁명이 진전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달랐는데, 대체로 그 속 도는 천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천문대의 대장을 누 가 말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세계 최초의 천체물리학 전문 천문대였던 포츠담 황립천문대가 설립(1909년)된 독일(Smith 2019: 114), 그리고 킬 러와 조지 헤일(George Ellery Hale)과 같은 천체물리학 선구자들이 1880-90년대 전후로 주요 천문대 대장을 맡게 된 미국은 비교적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학문적 보수파인 헨드릭 판 던 산더 박하위전(Hendrik G. van den Sande Bakhuyzen)이 1872년부터 1908년까지 라이던 국립대학 교 천문대장으로 장기 재임한 네덜란드는 변화가 상당히 느린 편이었다. 헨드릭과 그 후임으로 천문대 대장이 되는 동생 에른스트 판 던 산더 박 하위전(Ernst F. van den Sande Bakhuyzen) 형제는 분광학의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천문학에서의 “손쉬운” 새로운 발견은 조만간 고갈될 것 이며, 위치천문학(astrometry)적 정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연구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Baneke 2019: 89).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이 순수 한 역학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은 과학 중의 과학(the head of the hierarchy of the sciences)”이라고 생각했다(Smith 2019: 111). 이 런 점에서 판 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는 전형적인 19세기 구세대 천문학 자였다. 이미 저명한 학자였던 야코뷔스 캡테인(Jacobus Cornelius Kapteyn)도 자기 천문대가 없었고, 자기에게 라이던 천문대가 주어진다 면 판 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 라고 불만스러워했다(Baneke 2019: 90).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천문학계 는 종래의 위치천문학 우선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천체물리학 혁명이 진전되고 더 나아가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에른스트 판던 산더 박하위전 천문대장이 급사하고 그 후임으로 캅테인의 제자 빌렘 더 시터르(Willem de Sitter)가 임명되어(van den Heuvel 2019: 37)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천문학자들을 천문대에 불러모을 수 있는 인사권을 획득하고 나서부터였다.

2.2. 청년 천문학자 판네콕의 연구 관심사와 고뇌

1873년생인 안톤 판네콕은 네덜란드 식민제국 특유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고등시민학교(hogere-burgerschool)에서 수학했다. 고등시민학교는 중산층 출신 청소년에게 국가경영에 필요한 실용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생물학과 천문학을 비롯한 자연과학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천문학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선단을 보유하고 있던 네덜란드 식민제국의 항해술에 필요한 교양으로서 교육되었다(van den Heuvel 2019: 27). 판네콕은 라이던 국립대학교에 진학한 뒤, 1895년 학부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을 정확히 측정하는 국책 측지공학 프로젝트에 참여했다(van den Heuvel 2019: 30-31).

판네콕은 1899년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네덜란드사회민주노동자당에 입당했고, 당내 급진좌파의 일원으로서 타협주의적인 당수 트롤스트라(Pieter Jelles Troelstra)와 논쟁을 거듭했다. 한편, 1902년 박사학위를 받고 라이던 천문대에서 관측조교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라이던 천문대는 판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의 위치천문학 우선주의에 지배되고 있었지만, 판네콕은 천체물리학 프로그램, 즉 천문학에 다른 분야의 과학 지식을 접목시켜 천체의 물성을 규명하는 연구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소장파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부터 페르세우스자리 변광성 알골의 밝기 변동에 관한 것이었다. 1903년 11월에 발표한 「행성이 항성을 가릴 때 일어나는 현상에 관하여」(Pannekoek 1903)라는 제목의 논문은 수성·금성·화성·목성이 항성을 가릴 때 일어나는 밝기 변화와 행성의

대기 조성 사이에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1905년 3월의 「토성의 광도에 대한 몇 가지 관찰」(Pannekoek 1905)은 토성의 밝기 변화와 토성 고리의 구성성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또한, 1906년에 판네킷이 발표한 두 편의 프로시딩 제목을 보면 「서로 다른 분광유형을 가진 별들의 광도」(Pannekoek 1906a)와 「항성의 분광과 색상 사이의 관계」(Pannekoek 1906b)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판 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가 평가절하한 분광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순수한 역학적 계산으로서의 천문학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판네킷은 판 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 밑에서 연구하는 것에 심한 염증을 느꼈고, 더불어 천문대 일이 사회주의 운동과 괴리되어 있다는 고민도 품었다. 1899년 6월, 판네킷은 울분을 담아 이렇게 썼다.

왜 나는 투쟁에 참여할 수 없는가? 모두들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자오선 위치나 계산하고 있다. 과학은 인민과 조건을 변혁시키는(changing of people and conditions) 데 있어서 유일하게 지속적이고 진보적인 요인이다. 그것 [과학]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 [과학]은 인류가 자유롭게 행복해질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행복과 별의 위치 계산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정신적 곡예를 부려야 한다는 말인가(Tucker 2019: 185-186에서 재인용).

여기서 발견되는 판네킷의 고민은 두 가지 층위가 있다. 우선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자신의 직업인 천문학과 사회주의 운동·투쟁의 실천이 서로 조화되지 못한다는 고민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중요한 고민은, 천문학자로서 하기 싫은 일, 즉 “자오선 위치나 계산”하는 일을 보수파 천문대장에게 강요받고 있다는 고민이다. 당시 판네킷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치천문학의 단순계산 업무에서 사회주의자로서뿐 아니라, 천문

학자로서의 보람 역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판네키크는 고민 끝에 1906년 천문대를 사직한 뒤 그를 당교(黨校) 강사로 초빙한다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카우츠키(Karl Kautsky)의 초청을 수락하여 독일로 갔다(van den Heuvel 2019: 31-32, van Berkel 2019: 78). 이 시기에 판네키크는 사회주의 운동에 전념하여 천문학자로서의 실적이 비교적 축소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 귀국한 뒤에 매년 다섯 편 이상 천문학 논문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는 NASA/ADS에 등록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 그러던 도중 판네키크는 1909년 독일의 포츠담 황립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나르 헤르츠스프룽(Ejnar Hertzsprung)의 방문을 받고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고(van den Heuvel 2019: 34),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 이전까지 5편의 논문 및 프로시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판네키크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연구프로그램, 즉 천체물리학 페러다임에 호의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던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네키크는 1907년 3월 「포츠담과 케임브리지의 측광 카탈로그의 구조적 차이」(Pannekoek 1907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는 이 논문의 서론에서 알골에 대한 자신의 박사논문을 인용하고 그 의의를 “보다 어두운 별들에까지” 확장하고자 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천체물리학 전문 천문대인 “포츠담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수행한 보다 대규모의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 덕분에 가능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논문에서 “불행하게도 다른 업무로 인하여 연구를 빠르게 마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는데, 비록 논문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다른 업무란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당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자신이 원하는 천체물리학 연구를 소소하게나마 수행할 때, 판네키크는 사회주의 운동과 천문학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서 빠듯한 일정으로 인한 불편 이상의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

2.3. 판네키크의 마르크스 및 디츠겐 수용

판네키크가 네덜란드사회민주노동자당에 입당한 것은 1899년으로, 한참 판 산더 박하위전 천문대장 밑에서 시달리고 있을 즈음이었다. 판네키크는 이 과정에서 요제프 디츠겐(Josef Dietzgen)의 저작을 읽고 비로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디츠겐(1828년생)은 마르크스(1818년생)·엔겔스(1820년생)보다 조금 어린 동시대인으로서 1848년 혁명을 경험하고 공산주의자동맹·제1인터내셔널에 참여했다. 그는 무두장이 출신으로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한 철학자였다. 그는 마르크스·엔겔스와 독립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발견했고,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각각 『자본론』과 『포이어바흐론』에서 디츠겐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남겼다. 판네키크에게 디츠겐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으로 표상하는 세계관 전체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이었다(Pannekoek 1948: 23).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디츠겐은 주로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과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과학”을 설명하고자 했다. 디츠겐은 1887년 저서 『철학의 실증적 성과』(*The Positive Outcome of Philosophy*)에서, 고대와 중세의 “철학”으로부터 여러 “과학”들이 파생되어 나가 각자의 연구대상(objects)을 가지고 전문화된 근대사회에서 철학은 “실증적 지식(positive knowledge)”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Dietzgen 1906a: 333-336).

또한, 디츠겐 자신의 연구대상이자 목적은 “과학적 연구의 일반적 본질에 대한 탐구”이며, 자신에게 “과학적 연구의 일반적 본질에 대한 탐구”와 “지성에 대한 탐구”, “이해의 이론”(즉, 인식론)은 같은 것이라고도 말했다(Dietzgen 1906a: 354-362). 즉 디츠겐은 철학이 전문성 있는 분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 또는 ‘과학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동세대 인물이었던 디츠겐에게서 표출된 이 견해는 마르크스주의 과학철학(비록 그러

한 낱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을 최초로 시도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디츠겐의 사상이 청년 마르크스의 사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Burns 2002), 청년 마르크스의 수고들은 당대에 아직 출판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고, 판네퉁은 디츠겐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만큼 높이 평가하고 수용했다. 판네퉁은 1902년에 디츠겐의 아들이 출간한 선집에 서문을 써 주기도 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디츠겐의 의의는 이러하다:

디츠겐 이론의 특징은 우선 유물론이다. 독일철학이 가장 번창했던 시대의, 정신을 모든 실존의 기저로 여겼던 관념론 체계들과 달리, 디츠겐의 철학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에서부터 시작한다. 단순히 물리적 물질을 기저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따위 조잡한 부르주아지 유물론을 반박한다. 디츠겐의 이론에서 물질이란 사고의 재료로 제공될 수 있는 실존하는 모든 것이며, 거기에는 사고와 상상도 포함된다. 그 토대는 모든 구체적 존재의 일치성이며, 그렇기에 인간의 정신에 우주의 다른 것들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한다. 우주의 다른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신도 우주의 다른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디츠겐은 보여준다. 정신은 전체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만 실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주의 다른 부분들의 영향의 효과이다. ……

디츠겐은 왜 변증법이 이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찾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이란 일반화의 능력이다. 그것은 구체적 실재들로부터 형성되는데, 구체적 실재는 끊임 없는 운동들의 연속적이고 경계 없는(unbounded) 흐름이다. …… 모순은 이해력의 성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이해되고 해소될 수 있다. 이해력이란 곧 조합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며, 우주의 제한적인 부분을 형성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리고 이 모순은 더 나아가 세계의 성질을 꿰뚫음으로써 해결된다. 세계는 무한

히 많은 현상들의 통일체이며, 그 자체로 모든 모순들을 구성하고, 그것들을 상대화하고, 그것들을 동등하게 만든다(Pannekoek 1902).

즉, 디츠겐의 철학은 우선 물질을 기저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물론인데, 이 때 물질이라 함은 세계를 구성하는 사유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그리고 그 세계는 “무한히 많은 현상들”의 “연속적인 흐름”으로서 존재하는데, 인간이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함은 이 연속적인 흐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일반화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천체라는 현상으로부터 물성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천체물리학과 단순 계산작업의 반복인 위치천문학 사이의 패러다임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디츠겐 사상은 천체물리학 패러다임에 보다 친화적인 것이었다. 판네키크는 이 서문에서 “오래된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들로 주조하고, 일부는 기각하고, 어떤 개념으로 다른 개념을 대체하고, 개선하고, 연결하고, 해부하며 언제나 더 큰 통일성과 더 폭넓은 분화를 추구”하는 것이 “무한히 진보하는 과학의 혁명적 실천”이라고 열정적으로 말했다(Pannekoek 1902). 이 글이 천문학의 무한한 확장이 곧 끝나서 단순계산 작업으로 환원될 것이며 그 환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야말로 천문학이 과학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이유라고 말하던 보수파 천문대장에게 시달리던 시점에 쓰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뿐만 아니라 디츠겐은 이렇게 개념화된 과학을 ‘두뇌노동(brain work)’이라고 말했다. 판네키크는 디츠겐이 지식의 출처를 “사회적 노동과정”에 연결했고, 과학을 “생산적인 노동”으로 개념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에 종사하는 그 자신은 ‘과학노동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절에서 판네키크의 레닌 비판을 통해 상세히 다루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인 디츠겐이 사용한 노동이라는 말은 당연히 마르크스적 정의에서의 ‘노동’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후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판네키크는 보다 명시적으로 “과학노동(scientific labou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4. 소결

판네키크는 중등교육기관에서부터 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경력 초기부터 변광성 연구나 항성의 분광형에 대한 연구, 즉 천체의 물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1920년대 이후 판네키크는 네덜란드에서의 천체물리학 ‘혁명’에 있어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이것은 판네키크와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일단의 천체물리학자들이 천문학계의 주류가 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뒤의 일이었다. 천체물리학은 19세기 말엽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학문 전통이었고, 19세기까지의 전통적인 위치천문학을 고수하는 학문적 보수파는 천체물리학 수용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네덜란드 천문학계는 판 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를 비롯한 보수파가 주요 천문대의 사용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학문적 염증은 판네키크가 네덜란드 천문학계를 떠나 독일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한 원인이었다. 판 던 산더 박하위전 형제가 은퇴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천문대의 인사권이 천체물리학자들에게 넘어오기 전까지 네덜란드 천문학계의 세대교체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판네키크가 네덜란드로 귀국한 뒤에도 천문학 연구로 쉽게 복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판네키크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천문학자로서 느낀 염증에는 천문학자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로서의 실천과 괴리되어 있다는 고민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천체물리학 연구를 추구할 수 없는 천문학자로서의 직업적 불만이 혼재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천체물리학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실천과 괴리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당장 더 시터르와 헤르츠스프룽과 같은 학문적 동지들도 판네키크의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과 실천이 과학자로서의 연구에 방해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Baneke 2019: 94).

그러나 판네키크 자신은 양자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899년에 그가 작성한 불만의 목소리에서도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판네키크는 “인민과 조건을 변혁시키

는 요인”으로서 유효한 과학과 그렇지 못한 과학을 구분하고 있다. 1909년에 미국 시카고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리뷰』(*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도 유사한 관념이 드러난다. 이 글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을 통해 급진적 사회주의와 혁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위 강단사회주의를 비판한 글인데, 여기서 판네킨은 “이 과학”, 즉 강단사회주의 사회과학은 “기생층 계급을 안심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과학이라고 비판한다(Pannekoek 1909b). 그런데 이는 ‘그렇지 않은 과학’의 존재를 시사한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그렇지 않은 과학’은 당연히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을 의미했다. 그리고 판네킨은 천문학자로서는 보수적인 천문대장에게 억지로 강요당한 단순 계산 작업이 “인민과 조건을 변혁시키는 요인”으로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불만스러워했다. 반면에 천체물리학은 ‘그렇지 않은 과학’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정당화의 근거를 디츠겐 철학에서 찾았다.

신생 학문으로서 천체물리학은 이전까지 알려진 법칙에 현상을 맞추어보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현상으로부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판네킨이 이와 같은 학문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학계의 권력관계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던 1890년대 - 1900년대는 그가 마르크스주의에 완전히 귀의한 시기이기도 했다. 판네킨은 이 무렵 디츠겐의 인식론 철학을 읽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졌다. 디츠겐의 인식론 철학은 과학을 인간이 현상으로부터 개념과 법칙을 의식적으로 생산해내는 과정으로 개념화하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천문학계에서의 신·구 갈등에서 판네킨이 옹호하고자 했던 천체물리학의 학문적 실천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었다.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은 이 패러다임 경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였을 뿐 아니라, 독일로 건너가 사회주의 운동에 본격적으로 몸담으면서도 천문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같은 논리 위에서, 판네킨은 다음 3절에서 다룬 마르크스주의 운동권 내부의 논쟁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지식인과 노동대중의 분리와 구분이 유해하다는 입장을 전개해 나갔다.

3. 마르크스주의자 판네킷의 정치적 입장

3.1. 당대 마르크스주의 운동권의 사상적 지형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마르크스주의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도 논쟁의 시대였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 문제, 그리고 운동에서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 설정의 문제였다. 판네킷이 1902년에 디츠겐 선집에 써 준 서문(Pannekoek 1902)을 보면 이 당시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이념적 적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우리는 부르주아적 견지에서 제기되는 사회주의 과학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신칸트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칸트주의 윤리학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개중엔 일부는 기독교와의 화해와 유물론의 포기까지 말하고 있다”고 분개해서 말한다. 당시 판네킷은 네덜란드사회민주노동자당에서 트롤스트라의 타협적 지도부와 맞서는 당내 좌파에 속해 있었다. 독일의 카우츠키가 판네킷에게 주목하고 그를 초빙한 것도 이러한 반수정주의 투쟁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이었다.

개량주의의 이론적 뿌리 역시 독일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896년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이 독일사회민주당 기관지 『노이에 차이트』(*Neue Zeit*, 신시대)에 당의 개량적 역할을 인정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수정주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의 전술을 다룬 논쟁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인식론적 입장차가 깔려 있었다.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철학을 일종의 사회진화론으로 파악했다(Raflerty 1990). 카우츠키의 견해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공황의 반복으로 인한 생존의 불안이라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갖추어지면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계급양극화의 극단화와 이에 따른 폭력혁명의 필연성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당대의 “경험적 증거들”에 의해 이미 반박당한 것으로 보았고, 마르크스주의가 경험적인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박당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Gorman 1981). 하지만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의 필연성과 그 기저인 변증법을 부정했으므로, 사회주의를 과학적 법칙으로 예견되는 결과로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주의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향할 만한 것으로 위치지었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을 포기하고 칸트주의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판네퉁이 1902년에 디츠겐 선집 서문에서 비판한 “칸트주의 윤리학”과 “유물론의 포기”는 바로 이것을 말한다.

경험주의와 신칸트주의를 결합하여 철학적 기저로 삼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명이 러시아인 망명객 게오르기 플레하노프(Georgi Plekhanov)였다. 플레하노프는 수정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신칸트주의가 “유물론”(즉 마르크스주의)에 비해서 인식론적으로 저열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수정주의를 격퇴하려 시도했다(Plekhanov 1976a). 당시 플레하노프와 레닌(Nikolai Lenin)을 비롯한 러시아인 망명객 그룹은 러시아관 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주의(Economism)와의 투쟁에 주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경제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노동자 스스로”에게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당면한 경제적 권익부터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민중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던 러시아의 상황 때문에 경제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고, 그만큼 마르크스주의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인호 1987).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카우츠키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제2장에서 “지극히 옳고 또 중요한 말”이라고 인용한 바(Lenin 1988b: 47) 카우츠키는 “사회주의적 의식은 심오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데, 그 지식이란 무산계급 가운데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며, 무산자들을 “아무리 그렇게 하고자 하더라도 테크놀로지(자연과학 및 그 응용)와 경제학(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창조할 수 없”고, 그것들은 “과학의 담당자”인 유산계급 지식인들 가운데서 생겨나서, “무산자 계급투쟁의 외부로부터 도입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즉 이 시점에서 함께 반수정주의 측에서 있었던 카우츠키·플레하노프·레닌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투쟁과 비폭력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경제주의·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식인이 담지한 과학적 지식이 노동대중에 대하여 인식론적 우위에 있다는 입장에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 안팎에서 격렬한 반발을 받은 수정주의는 결국 독일사회민주당의 1903년 드레스덴 결의안 그리고 제2인터내셔널의 1904년 암스테르담 결의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정작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당에서 제명당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탈당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독일사회민주당이 의회에 가진 의석을 포기하고 혁명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수정주의 논쟁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일사회민주당의 주요한 실천은 “사회의 완전한 변혁”, 즉 폭력혁명이 아니라 투표권 확대를 비롯한 개량적·개혁적 경향에 치우쳐 있었다. 카우츠키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선거에 이겨서 여당이 되는 것이 정치권력의 장악이라고 설명했다(Kautsky 1910).

한편,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를 중심으로 한 또다른 집단은 객관적 조건의 중요성과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시도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산자 운동은 압도적 다수의 이해를 위한 압도적 다수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라는 『공산당선언』의 테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인식은 특정한 지도부 없이 창발적으로 일어났던 1905년의 러시아 제1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로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총파업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이며, 자발적으로 총파업에 나서는 노동대중이 능동적인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직보위 논리에 젖어 있던 당대 독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들에게 로자의 급진적 제안은 노조운동과 사회민주당의 의식 확대, 즉 개량주의적 실천을 통해 얻어낸 경제투쟁의 성과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1906년 만하임 당대회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은 대중파업을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인정하되(이상호 2005: 15-16), 그것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노조 지도자들(파업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꺼리는)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카우츠키는 ‘중양파’로서 로자 등 급진좌파와 개량적 노조를 동시에 꾸짖는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수정주의 측에서 내세운 노동자들의 자발성 논리를 비판한 것과 같은 논리로 그는 급진좌파 역시 비판했던 것이다.

3.2. 판네쿱의 제2인터내셔널 내부 논쟁 참여

판네쿱 역시 네덜란드 시절부터 수정주의와 그 바탕의 칸트 관념론을 비판하는 논고를 발표해왔다(Pannekoek 1901). 그러나 판네쿱이 독일에 온 것은 1906년으로, 1904년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반수정주의 측의 판정승이 한 차례 내려진 뒤였다. 때문에 판네쿱의 독일사회민주당 당내 논쟁에 대한 본격적 참여는 대중파업 논쟁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쟁에서 그는 로자를 비롯한 급진좌파 측에 가담했다. 그는 지식인들이 노동자 대중에 대해 절대적인 인식론적 우위를 가진다는 당 지도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1912년, 판네쿱은 『노이에 차이트』 지면에 「대중행동과 혁명」을 기고했다. 이 글은 그 전해 10월에 같은 지면에 발표된 카우츠키의 「대중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카우츠키는 이 글에서 당과 노조로 조직화된 “대중”과, “조직화되지 않은 인민대중의 자발적인 정치·경제적 행동으로서 때때로 결합하고 결합한 뒤에는 다시 흩어지는 ‘거리’”의 대중을 구분하여, 후자는 “예측불능성으로 인하여 혁명운동과 당에 파괴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Kautsky 1911). 이에 대하여 판네쿱은 「대중행동과 혁명」에서 카우츠키가 무산자·소시민·유산시민을 “대중”으로 뭉뚱그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무산계급의 수적 우세에

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견고하게 조직”된 소수 지배계급의 “정신적 지배” 때문이며, 대중행동은 무산대중이 의식화되어 그 지배에 맞서 도전하기 시작한 증거이자, 무산계급이 의식화된 단계에서의 새로운 투쟁전술이라고 주장했다. 판네킨이 보기에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전체 무산계급의 1할에 불과한 조직노동자”들의 운동이었고, 미조직 노동력이 대다수를 이루는 대중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Pannekoek 1912a).

카우츠키는 「새로운 전술」이라는 제목의 반박에서 판네킨이 자신을 “순수한 수정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감히 당의 이론 지도자인 자신에게 “마르크스주의의 ABC”를 가르치려는 것이냐고 신경질적으로 대응했다(Kautsky 1912). 판네킨은 이어 발표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혁명 전술」에서 자신은 카우츠키를 혁명을 아예 부정하는 수정주의자로 여기지는 않으며, 다만 그가 혁명을 먼 미래에나 찾아올 “정치적 묵시록 (political apocalypse)”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을 비롯한 급진파는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재가 혁명적 정세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인식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판네킨은 이 글에서 “혁명을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과 혁명을 무기한 미래로 연기하는 카우츠키는 …… 오늘날의 많은 쟁점들에 있어 우리와 반대되는 한 축으로 묶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Pannekoek 1912b)고 선을 그였으며, 그로 인해 카우츠키와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 같은 글에서, 판네킨은 카우츠키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혁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고정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존재자들로 간주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전환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915년, 판네킨은 「행위로서의 마르크스주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나 둘째로, 인간은 그 상황을 개조해낸다. 인간은 경제적

요구의 행위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 요구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두 부분이 동등하게 옳고 중요하며, 둘이 더불어 전체 이론을 구성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둘 중의 어느 한쪽이 더욱 강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1878년 이후의 가혹한 박해의 시대 …… 에, …… 역사적 유물론은 강력한 숙명론적 색채를 떨 수밖에 없었으며, ……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론 작업들, 특히 카우츠키의 작업들은,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 관계가 압도적인 권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제조건이 노동계급의 전면적 반란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을 때도 계속 의식적으로 수행되었다. …… 이런 식으로 당관료주의가 당의 모든 신선한 흐름들을 경색시키고 당의 전술들이 얼어붙는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의 세계변혁 교의는 당의 이론가들의 붓끝에서 무익한 숙명론(sterile fatalism)이 되어 버렸다. 경제적 발전 그 자체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아무 위험도 없이 밀어줄 것이고, 우리의 힘은 계속 저절로 증가일변도일 것이고, 마침내 농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권력이 우리 무릎에 푹하니 떨어질 것이라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Pannekoek 1915)

당의 이론적 지도자였고 판네킨 자신을 독일로 초청한 당사자이기도 했던 카우츠키는 이제 판네킨이 보기에 과거의 조건에 의하여 규정지어졌던 전술에 머물러 복지부동하는 결정론적·기계론적 유물론자, 즉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판네킨은 카우츠키가 베른슈타인과 같이 관념론의 진영으로 아예 변절한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견지하는 변증법은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도 실천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카우츠키를 비롯한 독일사회민주당 당권파는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의 흐름을 놓치고 낙오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판네킱이 카우츠키에게 초빙되어 독일로 온 것은 베를린에 세워진 독일사회민주당 당교의 강사로 위촉된 것이었다. 당교 운영 첫 학기의 강사진은 유물론 철학 담당의 판네킱과 정치경제학 담당의 힐퍼딩(Rudolf Hilferding)이었다. 그러나 독일 공안당국이 두 강사의 외국인 신분을²⁾ 문제삼자 강사가 로자와 하인리히 쿠노(Heinrich Cunow)로 교체되었고(Pannekoek 1907b), 판네킱은 언론선전 업무로 돌려졌다. 하지만 당교 강사로서 임용된 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자로서 판네킱의 주요 관심사는 철학 부문이었다. 어떤 정강이나 전술이 마르크스주의 철학, 즉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역사적 유물론’에 비추어 타당한지가 그에게는 아주 중요했고, 카우츠키 비판도 그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판네킱이 생각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요제프 디츠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러시아의 플레하노프와 레닌을 거쳐 소련에서의 철학적 교의로 발전된 것과 조금 달랐다.

판네킱은 인간의 의식과 물질적 제조조건이 변증법적으로 상호구성을 반복하듯이,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이론과 전술을 비롯한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도 인간의 개입에 의해 상호구성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근거를 디츠겐에게서 찾았다. 시기적으로 판네킱이 네덜란드사회민주노동자당에 입당한 것이 1899년이었고(van den Heuvel 2019: 31), 마르크스주의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디츠겐을 읽었기 때문이었다(van der Steen 2019: 144).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판네킱은 먼저 디츠겐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과학관을 정립했고, 그에 따라 독일로 온 이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한 것이었다.

판네킱이 독일사회민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디츠겐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디츠겐 본인과 같이 독학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기를 열망하던 기층 노동자들이었고(Gorman 1991), 다른 하나는 판네킱을 비롯한 일부 지식인 활동가들이었다.³⁾ 그러나 당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 사이

2) 판네킱은 네덜란드인, 힐퍼딩은 오스트리아인이었다.

3) 판네킱 외에도 에르네스트 운터만(Ernest Untermann, 고생물학도 출신),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혈액학자), 페울스 더우게(Pauls Dauge, 치과의사) 등이

에서 디츠겐에 대한 평가는 단일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플레하노프는 디츠겐에게서 마르크스·엔겔스·헤겔에게 없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어 낼 수는 없으며,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디츠겐이 독학자라서 학식이 충분히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다(Plekhanov 1976c). 플레하노프는 1907년 판네킱을 비판하는 기고문에서 “그는 박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확하게는 박사님이기 때문에 엄격한 마르크스주의 학파(school)를 졸업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플레하노프 자신이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에 판네킱이 속할 수 없는 이유를 그가 과학자라는 사실로부터 찾고자 했다는 점은, 향후 경직화되고 절대화되는 마르크스주의 ‘정통’과 ‘과학자’ 판네킱이 긴장하고 불화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Plekhanov 1976b).

대중과업 논쟁 때부터 판네킱은 이미 노동대중의 주체적 직접행동을 중요시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는 의회주의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네킱의 인식은 첫째로 제1차 세계대전을 막아내지 못한 제2인터내셔널의 총체적 파탄을 성찰하여 제2인터내셔널 시절의 모든 요소를 청산되어야 할 “가차없는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요소란 즉 수정주의의 존재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혁명적 행동을 포기하고 의회 의석의 증가에 안주하게 만든 카우츠키식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Pannekoek 1917).

판네킱이 의회주의의 시대가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두 번째 요인은, 전쟁피로감에 사로잡힌 병사와 대중들의 자발적 봉기로 인하여 러시아와 독일의 제정이 붕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두 봉기는 모두 명확한 지도자 없이 시작되었고, 평의회(Council, 러시아어로 Soviet)라는 자치기구를 통해 혁명을 진행했다. 판네킱은 평의회를 혁명적 정세와 대중의 의식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 기존의 의회제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기구라고 판단했다.

있는데, 자연과학 또는 그 주변 분야(의학 등)를 생업으로 삼거나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3.3. 소결

1차대전 이전까지 국제사회주의운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모순에 처해 있었다. 일차적인 원인은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자본주의의 붕괴가 임박하지 않아 보임에 따라 “과학적 사회주의”의 위상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었다. 혁명의 전망은 불투명했고, 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경제투쟁의 성과의 후퇴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역사법칙의 과학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가 도덕적 정의에 가깝기에 추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관념론으로 이행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혁명을 굳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와 한 쌍을 이루었다. 여기에 대하여 카우츠키를 비롯한 제2인터내셔널 중앙파는 객관적 지식을 갖춘 지식인의 노동대중에 대한 지도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혁명은 자연히 일어난다는 인식과 한 쌍을 이루므로써, 혁명을 사실상 무기한 미래로 연기하는 “정치적 묵시록”이 되고, 의회 진출을 비롯한 개량적 실천에만 몰두하는 결과를 낳아 실천적 측면에서 수정주의와 차이를 찾기 힘들어졌다.

판네크은 이 두 가지 흐름을 모두 거부했고, 이를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이라는 객관성과 노동계급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주관성이 총체성을 이루는 이론과 실천을 추구했다. 이 담론장에서 로자는 대중파업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결합된 실천이자 현장으로 지목했고,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가로서 독일사회민주당의 당내 논쟁들을 경험한 판네크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수정주의의 철학적 기저인 관념론을 거부하고 유물론을 옹호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과 혁명의 필연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결정론적·기계론적 유물론이 아닌 변증법적·역사적 유물론을 옹호하여 노동자 대중의 실천을 통한 혁명의 적극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식화될 수 있었다. 정치의 장에서 이것은 각각 사회주의 탄압법 폐지에 따른 정세변

화에 안주하여 온건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투쟁,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말로만 비판하면서 일소하지 못하는 카우츠키 등 당 지도부에 대한 투쟁으로 나타났다.

판네크이 당시의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의 논쟁에 참여하면서 기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디츠겐의 인식론이었다. 디츠겐 인식론은 과학을 인간이 현상으로부터 지식을 생산해내는 활동으로 개념화했다. 그래서 오늘 옳았던 지식도 내일의 보다 진보된 지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다. 판네크이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이론과 전략 역시 그러한 지식의 일종이었다. 판네크은 카우츠키가 기존의 이론과 그것을 답지하는 당 지도부의 지식인들의 위치를 절대화하며, 그것이 정치적 실천의 차원에서는 대중 위에 군림하는 전문 정치인을 창출하는 의회제의 형태로 실천된다고 생각했다. 제2인터내셔널의 실패한 노선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판네크은 의회정치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레닌 및 소련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판네크은 소련식 노선이 지식인 집단인 “당”이 노동계급 위에 군림하는 독재체제라고 보고 소련식 공산주의를 비판해 나갔다.

4. 과학노동자 판네킣: 과학은 하나의 노동이다

4.1. 판네킣의 ‘중간계급 유물론’ 비판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판네킣은 다른 과학자들에게 불만이 많았다. 판네킣이 “사회주의자 무두장이[디츠겐]의 목소리가 학계의 강당의 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Pannekoek 1902) 그는 아직 라이던 국립대학교 천문대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천문대를 그만두고 독일행을 선택한 직후에는 “유산자적 과학자”들이 “카를 마르크스의 노작인 『자본론』에서 제시된 자본주의의 과학적 분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 지식계급은 “부르주아 출신이거나, 적어도 소자본가 출신이며,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선입견을 그 출신성분으로부터 공유하고 있다”고(Pannekoek 1909b) 말했고, 환경파괴와 멸종위기 문제를 다루는 글에서는 “과학자들은…… 이 비참한 상황……의 원인[자본주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Pannekoek 1909a) 썼다.

이렇듯 천문대를 그만두고 독일행을 선택한 전후의 시점에서 판네킣은 과학자들이 유산계급 출신이고, 대개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환멸감을 품고 있었다. 판네킣의 이러한 비판의식은 어떤 관념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업적 자연과학자로서 천문학계라는 과학자 공동체에 몸담은 경험으로부터 체득한 것이었다. 판 더 산더 박하위전 천문대장과 같은 학계의 보수파뿐만 아니라, 판네킣과 함께 소장파를 이루었던 아이나르 헤르츠스프룽, 빌럼 더 시터르도 판네킣의 정치활동이 그의 천문학 연구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여겼다. 1919년 4월, 판네킣이 헝가리 혁명에 연루되어 구설에 올랐을 때 더 시터르가 판네킣에게 공산주의자인지 천문학자인지 확실히

하라고 폭언한 것(Baneke 2019: 94)에서 알 수 있듯이, 동시대의 다른 천문학자들은, 심지어 천체물리학 혁명의 학문적 동지들마저 천문학자와 공산주의자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판네키크는 판네키크대로 “자연과학은 그들[부르주아 유산시민계급]의 무기가 되[었고] …… 과학과 새로이 발견된 자연법칙들 …… 그것은 유산시민계급의 무기였다”고 생각했다(Pannekoek 1912c). 판네키크는 자연과학의 지식이 유산계급의 무기로 동원되고, 자연과학자들이 사회혁명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되는 이유를 디츠겐에게서 찾아냈다. 판네키크에 따르면 그것은 소위 ‘중간계급 유물론’의 세계관 때문이었다.

판네키크가 말하는 “중간계급 유물론(Bürgerliche Materialismus, middle-class materialism)”이란 루트비히 뷔흐너(Ludwig Büchner)·카를 포크트(Carl Vogt) 등으로 대표되는 19세기의 자연과학적 유물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간계급 유물론은 중간계급의 계급적 이해에 복무하여, 기존 지배계급의 정신적 기초인 종교(기독교)와의 투쟁을 임무로 삼고, 그 근거로서 자연과학의 발견에 의존한다. 특히 그들은 반종교 투쟁을 위해 모든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했다. “쓸개가 담즙을 분비하듯이 두뇌가 생각을 분비한다”는 포크트의 말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명제였다. 엥겔스는 경멸을 담아 이들을 “속류 유물론자”라고 불렀다. 판네키크는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간계급 속류 유물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들에 대하여 “천박하다”거나 “속류적”이라는 비난을 통해 그들과 한데 묶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직접적인 논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Mitchell 1978). 마르크스가 포크트를 비판한 문건이 있으나 그것은 포크트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었고, 그의 철학적 견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Marx 1944). 『포이어바흐론』에서 자연과학적 유물론의 멸칭으로서 “속류 유물론”이라는 말을 고안한 당사자인 엥겔스는 1854년경 뷔흐너에 대한 비판을 쓰고자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고,

1925년에 출간된 미완성 원고집 『자연변증법』에 몇 페이지짜리 과편만 남겼을 뿐이다(Engels 1989: 194). 판네키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워낙 앞서간 위인들이었기에, 중간계급 유물론을 18세기 계몽주의의 낡은 관념으로의 회귀에 불과한 것으로” 과소평가했으며, 속류 유물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시도한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아닌 디츠겐이었다고 주장했다(Pannekoek 1948: 23).

판네키크는 “자연과학은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말한다. 자연과학은 물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진보를 좌우하며,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봉건적 미신으로부터 정신을 해방시키는 힘이다. 자연에 대한 종교적 해석과 전제군주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농업사회는 한 묶음으로서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의 설명과 부르주아가 법치주의로 통치하는 자본제 사회로 대체된 것이며(Pannekoek 1948: 14), 그 대체된 과정이 바로 근대화다. 때문에 자연과학은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친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초중반까지 여전히 강고했던 종교적 봉건계급과 투쟁하던 부르주아 중간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일치하는 무기로서의 가능성마저 자연과학에서 찾아냈다. 그것이 중간계급 속류 유물론이다.

엥겔스는 18세기의 유물론이 기계적(mechanical) 유물론이었던 것은 그 당시 발전했던 자연과학이 역학(mechanics)뿐이기 때문이었고, 19세기의 속류 유물론은 18세기 유물론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자연과학으로 종교를 공격하는 18세기 유물론의 태도를 답습했다고 보았다(Engels 1987a: 46-49). 판네키크는 이에 대하여 19세기에 중간계급 유물론이 유행했던 것은 세포설과 에너지 이론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것이었다고 명확하게 보충한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속을 채우고 있는 단백질 실체인 원형질이 생명 아닌 물질과 똑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리고 “물질은 파괴될 수 없고 질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며, 오로지 형태와 조성만 변화할 뿐”이라면 “모든 정신적인 것은 그저 물질적 과정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가장 급진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Pannekoek 1948:

16). 이렇게 인간 정신 및 사회에 대한 인간과학의 문제를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중간계급 유물론의 한 최종적 형태가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였다. 판네쿠크는 1909년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스펜서(Herbert Spencer)와 헤켈(Ernst Haeckel)을 비롯한 사회다윈주의자들을 직접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Pannekoek 1912c).

판네쿠크는 중간계급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전자를 비판한다. 첫째로, 중간계급 유물론은 정신작용·사고능력·감각능력을 자연과학적 개념들, 즉 뇌신경을 이루는 물질(matter)·에너지·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환원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이 그 자체로 자명히 실재하는 실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디츠겐은 『인간 두뇌노동의 본질』(1869년)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생리학자는 “…… 우리는 모두 중추신경계가 두뇌의 지적 기능들의 유기적 중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충분히 맞는 말이다. 글쓰기가 손의 기능인 것만큼 생각하는 두뇌와 중추신경의 기능이다. 그러나, 글쓰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해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만큼,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에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 두뇌의 생리학적 연구가 도움이 되는 정도도 딱 그만큼이다. 해부칼로 절개하면 사람을 잡을 뿐 거기서 정신을 발견할 수는 없다(Dietzgen 1906a: 61).

그 말처럼, 중간계급 유물론은 실재하는 실체로서 정신작용을 표상하는 “두뇌를 이루는 원자의 동역학”(Pannekoek 1948: 18), 또는 정신“력”이나 정신“에너지”(Pannekoek 1948: 17) 같은 것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반면에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그러한 정신적 현상들이 생산양식과 계급적 이해관계를 비롯한 사회적·역사적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러한 조건들이 특정한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무리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앞서 과학은 “미신”을 타파한다고 했는데, 이때 “미신”이란 자연현상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판네킵은 “인간의 사유가 객관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Engels 1987a: 106)라는 마르크스의 포이어바흐 제2테제를 이렇게 해설한다. 인간의 사유란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이고, 그 행위의 결과가 세계 가운데서 인간의 생존과 실존에 기여할 때 그 사유는 진리를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사유의 결과로써 인간이 “현실세계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주인 될(mastery)” 수 있을 때 사유가 진리를 파악한다는 것이다(Pannekoek 1948: 9-10).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 주인 되지 못하는 시공간에서는 “사유가 진리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사회를 비롯한 세계를 지배하는 “힘(force)”들에 대하여, 인간이 그 힘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인간을 지배할 때, 인간은 스스로의 사고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초월적인 무언가를 가정하고자 하는 “미신”에 빠지게 된다(Pannekoek 1948: 11).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 된다고 함은, “일반화와 규칙성, 자연법칙 같은 것을 도출해내며, 그것들 위에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써 그것을 인간 자신이 의식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됨을 말한다. 근대 자본제 사회는 인간이 자연력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것의 주인이 된 세상이며, 여기에 기여한 지식체계가 자연과학이다.

그런데, 사회적 힘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자본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공황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에 휘둘렸다. 19세기 하반기는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게 된 유산계급이 “미신의 노예”가 된 시기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힘, 그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타도하겠다는 집단과 이념을 창출하기도 하는 그 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판네킵은 1907년에 쓴 「사회주의와 종교」라는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본가는 알지 못한다. 자본가는 정치경제학을 몰라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거대한 사회적 힘들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없다. 그 사회적 힘들은 그가 운 좋다면 그를 번영으로 끌어올려 줄 수도 있지만, 또한 그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힘들의 기원은, 생산이 사회적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생산이 기업의 사적 통제의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개인의 생각은 환상이다. 생산물은 반드시 타자와 교환되어야 하고, 교환의 조건, 가격, 그리고 교환 자체의 가능성은 모두 사회적 조건의 총체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이 사회에 의해 의식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의지 밖에 서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법칙은 자연력과 같은 불가피함과 냉혹함으로 개인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 인위적인 자연(인용자: 인간 사회)의 법칙, 이 생산과정의 법칙을 자본가는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연의 법칙 앞에 서 있는 야만인과 같이 사회의 법칙 앞에 선다. 여러 가지 형태로 파괴와 불행을 가져오고, 때로는 행운도 안겨 주는, 운명을 번덕스럽게 지배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Pannekoek 1907c).

따라서 판네키크는 19세기 하반기에 유산시민계급, 즉 자본가 계급이 모든 것을 자연과학적 실체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는 중간계급 유물론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또한 자신들이 지배계급이 된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고수할 필요도 없어진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힘”을 규명해낸 것이 바로 마르크스이고, 그에 근거한 예측을 내놓음으로써 마르크스는 “사회의 자연과학(natural science of society)”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네키크는 말했다(Pannekoek 1948: 30). 그에 따르면, 자연과학으로 사회현상을 환원하고자 했던 중간계급 유물론이 사회에 대한 설명과 통제에 실패했음에 비할 때,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과 그것이 근거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 설명력의 측면에서도 훨씬 우월한 것이었다.

판네키크는 포크트를 속류적이라고 비판한 엥겔스조차도 “중간계급 유물론”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았다. 엥겔스는 『포이어바흐론』 제2장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연현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그 조건으로부터 발생시키며 ……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면” 칸트 관념론에서 말하는 “인식할 수 없는 ‘물자체’”는 반박된 다며, 꼭두서니에서 뽑아내는 알리자린 안료를 이제는 인공적으로 대량 합성해내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Engels 1987a: 41). 하지만 판네키크는 엥겔스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판네키크에 따르면,

이것은 합성에 사용된 화학식의 타당성만을 입증할 뿐이다. 그것은 칸트의 “물자체”에 대한 유물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물자체 개념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서문에서 나타나듯이, 도덕법칙의 지상적(earthly) 기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산계급 철학의 무능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물자체”를 논박하는 것은 화학공학이 아니라, 도덕법칙을 사회를 통해 해명하는 역사적 유물론이다. 엥겔스가 역사적 유물론으로 칸트철학의 오류를 알아보고 그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논거들에서였다 (Pannekoek 1948: 11).

즉, 판네키크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인간과학의 정당화 또는 반박의 논리로 선불리 사용하는 시도 전반이 중간계급 유물론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다. 엥겔스가 『반뒤링론』에서 변증법이란 “자연, 역사 및 사유의 중요한 발전법칙”(Engels 1987b: 152)으로서, 사물은 “정지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모순이 부단히 성립하고 또한 그것이 해소”되는 운동으로서 존재한다(Engels 1987b: 132)고 말한 것에 비교해 보면, 판네키크의 태도는 ‘변증법’으로부터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판네키크는 1909년 저서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동물에 대해서는 다윈의 이론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엄격하게 나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했다.

자연과학에 근거한 논증은, 사회적 문제에 적용되면 거의 항상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발달과 변혁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에, 자연이 거의 안정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자연의 변화를 포착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인간사회는 매우 빠르고 연속적인 변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의 추동력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사회로서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회발전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다윈주의는 각자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양자는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고, 서로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Pannekoek 1912c).

그러나 판네키크는 이렇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을 구분하여 변증법 적용의 엄격함에 차등을 두는 자신의 생각이 변증법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판네키크가 보기에, 자연과학을 이루는 각 분야는 지극히 좁게 전문화된 분야들이었다. 총체로서의 세계에 대하여는 변증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좁은 분야에서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변증법이 관철되지 않아도 연구의 실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고정된 대상(fixed object)”으로 간주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판네키크는 변증법적 사유가 결여된, 특수한 분야에서만 유효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인간을 포함한 세계 일반으로 확장시킬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특히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비변증법적 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변화하는, 변증법적 전환이 수시로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판네키크에 따르면 인간 및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와 나머지 자연이 연구대상으로서 구분된 순간이 바로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며, 그 구분은 인간이 노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노동에 동원될 도구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단 한 가지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목적을 위해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한다. 인간은 이런 도구들 때문에, 동물과 같지 않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게 된 도구와 무기 너머로 진전할 수 없는 반면,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도구를 만들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서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는 동물로서 인간은 도구를 선택할 줄 아는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사고가 오가고, 인간의 정신은 모든 도구들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고려하고, 인간의 행동은 그 고려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그는 한 사고를 다른 사고와 조합하기도 하며, 자기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생각을 고수한다(Pannekoek 1912c).

특히 판네키는 이 “도구”의 중요성에 주목하는데, 후술할 바와 같이 그는 과학이라는 정신노동에서 창출되는 개념·이론·법칙과 같은 지식을 또한 정신노동에 재투입되는 노동도구로 인식했다.

이렇게 중간계급 유물론을 지양한 결과로 자연과학과(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은 명확하게 다른 연구대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구대상의 성격이 상이한 두 과학이 어떻게 동등한 과학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연과학이 태생적으로 자본친화적이고 심지어 반사회주의 논변의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노정에서 과학자의 위치는 무엇인가? 판네키는 디츠겐을 계승한 인식론 철학을 통해 ‘과학’을 재규정하여 그 문제에 답하고자 했다.

4.2. 『철학자로서의 레닌』 : 판네키의 레닌 비판

1938년, 판네키는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비판하는 『철학자로서의 레닌: 레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적 고찰』(*Lenin als Philosoph. Kritische Betrachtung der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s Leninismus)을 암스테르담에서 독일어로 출간했다. 이미 1924년에 사망한 레닌이 1908년에 썼던 책에 대한 비판을 1938년에 들고나온 것은 느닷없이 보일 수 있으나, 판네킨으로서는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레닌이 1909년 저술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당시 러시아의 볼셰비키당 당내에서 벌어진 마흐주의 논쟁에서 마흐주의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쓰인 것이었다. 당시 레닌과 경쟁했던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는 에른스트 마흐의 경험론, 실증주의 철학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보완하고자 했고,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를 “인식론적 사회주의”라고 개념화했다(Lenin 1988a: 245). 플레하노프와 레닌은 이것을 마르크스주의 정통으로부터 일탈한 이단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한 비판으로 진압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스탈린 시대를 거치며 소련에서 경전화된 교과서의 지위를 얻었고, 1930년대에는 양자론과 상대론 같은 물리학 이론들을 “마흐주의”라고 박해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었다(Graham 1985).

또한, 스탈린이 이 책을 독일어판과 영어판으로 번역해서 유포한 것은 서유럽 사회주의 운동에 대하여 코민테른을 통한 소련의 지도성에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예컨대, 당시 영국에서는 스탈린주의화된 그레이트브리튼 공산당(CPGB)에서 대학생 운동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그전까지 노동자 계몽 운동에서 일정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던 “디츠겐주의” 경향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현상은 1927년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영어판이 출간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레닌이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디츠겐의 주장들을 문제 삼아 “디츠겐은 반동적 철학자들의 호의를 샀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Gorman 1991).

판네킨의 레닌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레닌이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저술한 마흐 및 아베나리우스에 대한 비판이 그들에 대한 오해 또는 의도적 곡해에 기반한 허수아비 때리기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레닌이 마흐를 비판하

는 근거로서 제시한 레닌 자신의 철학적 세계관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적·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니라 “중간계급 유물론”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차원은 결론에 가서 하나로 합일된다. 판네킵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의 구절들을 직접 인용 해가면서 그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과학적 지식에 대한 레닌의 견해는, 판네킵에 따르면 “하나도 이치에 맞는 것이 없다”(Pannekoek 1948: 55).

판네킵은 레닌의 논술에서 과학이론의 개념과 법칙들이 그 자체로 실재한다고 여기는 중간계급 유물론의 관점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레닌이 마흐를 비판할 때 자연과학과 상식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부당한 이유는 어째서인가? 첫째로 자연과학에 대하여서는, 학계에서 새롭고 이질적인 주장이 등장하면 기존의 주류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상식이란 원래 기존에 과학 엘리트의 사이에 공유되던 기존의 정설이 대중에게 점차 확산된 것으로서 과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을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없으며, 이론적 혁신이 이루어질 때 상식은 혁신을 반대하는 낡은 지식으로서 제기된다. 과거의 한때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자연과학과 상식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한 순간의 모습을 고정해서 그로부터 정당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몰역사적인 것이다(Pannekoek 1948: 52-53).

나아가 판네킵은 레닌이 “자연”과 “자연법칙”을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판네킵이 인용한 바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자연현상 속에서 균일성을 정말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균일성이 우리 정신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인간의 인식능력이 자연의 단순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관념론 철학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흐는 자신의 최신 저작인 『경험과 오류』에서 자연법칙을 “기대의 한계”라고 규

정하기조차 한다! 유아론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Lenin 1988a: 168-169).

그리고 이에 대한 판네킱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현실에는 필연성 같은 것이 없다. 우리가 정식화한 자연법칙이 있을 뿐이며, 실천에 있어서는 그 법칙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어, 우리는 그 편차들을 추가적인 법칙들이라는 형태로 표현한다. 자연법칙은 자연이 필연적으로 어찌할 것임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연이 어찌할 것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정신이 자연의 단순한 반영이어야만 한다는 어리석은 발언은 이제 더 논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Pannekoek 1948: 55, 강조는 인용자).

판네킱은 레닌이 여기서 자연법칙이라는 것을 “반론불가능한 표현”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판네킱이 생각하는 법칙이란 “자연 속에서 각자 다양한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규칙성”을 “우리가 정식화한” 것이다. 법칙의 예측이 적중하는지 여부는 그 법칙이 자연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실제의 현상의 차원에서는 틀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자연법칙이다.

이어서 판네킱은 레닌이 마흐의 사유경제성(economy of thinking)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판네킱이 마흐의 그 개념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개념이 과학지식의 노동도구적 특성을 잘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판네킱은 “인간이 각각의 상황에서 주위환경의 인상에 효율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상황의 모든 과거 사례들과 그 결과들을 모조리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다만 일반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던지만 알면 되고, 그것을 규칙이라 하며, 그에 따라 인간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에게 추상화를 통해 창출해낸 규칙성의 개념, 법칙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적 실존을 위한 도구(instrument)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판네키크는 “인간의 짧은 수명과 제한적인 기억력으로 인하여, 중요한 지식은 오로지 최고도의 사유경제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의 과업은 “최소한의 두뇌노동으로 가능한 한 사실을 완전하게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한 마흐에게 동의한다(Pannekoek 1948: 34). 판네키크는 사유경제성 개념에서 “추상적 이론을 (과학)노동의 실천 (practice of (scientific) labour)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을 만한 것”이라고 기대한다(Pannekoek 1948: 55). 반면에, 레닌은 마흐의 사유경제성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자를 쪼갤 수 없는 것으로 “사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아니면 양전자와 음전자로 이루어진다고 “사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러시아 부르조아혁명이 자유주의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사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자에 대항해서 수행된다고 사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사유의 경제학”이라는 범주를 여기에 적용하려는 주관주의의 불합리성을 알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간의 사유는 그것이 객관적 진리를 정확하게 반영할 때만 “경제적”이다. 그리고 이 정확성의 기준은 실천, 실험 그리고 산업이다. 객관적 실재를 부인할 때만, 즉 마르크스주의의 제 기초를 부인할 때만 인식론에서 사유의 경제학을 진지하게 논할 수 있는 것이다(Lenin 1988a: 180- 181).

판네키크는 레닌의 말은 “우스꽝스러운 헛소리”이자 “이해부족”이라고 일축하고, 사유경제성의 개념을 과학사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넓은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체계(world-system)는 지구를 세계의 중심에 고정했고,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도록 했는데, 행성들은 두 개의 원의 조합인 주전원을 따라 돌도록 했다. 코페르니쿠

스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와 행성들이 단순한 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도록 했다. 두 이론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확히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상대적인 운동들만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중에 누가 객관적 세계의 그림을 그려낸 것인가? 두 이론이 똑같은 예측을 내놓는 바, 실천적 경험은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코페르니쿠스는 불박이별들을 가리켜, 별들의 시차(parallax)가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옛 이론 측에서는 별들도 행성들처럼 1년에 한 바퀴 원을 그리는 것으로 만들었고, 두 이론의 결박값은 다시금 똑같아졌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 단지 지구를 불박아놓기 위해서 수천 개의 천체들이 유사한 원을 그리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왜 터무니가 없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세계-그림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다——코페르니쿠스설이 선택되고 진실되었다고 진술된 것은, 그것이 가장 단순한 세계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Pannekoek 1948: 56).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판네키의 이와 같은 해설은 토머스 쿤(Thomas Kuhn)이 『코페르니쿠스 혁명』(1957)에서 “코페르니쿠스설이 지지받은 이유”는 미학적으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Kuhn 2016: 333-336)이라고 말한 것과 피상적으로 비슷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네키는 코페르니쿠스설의 단순함이 미학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이며, 그 단순함이 ‘정신노동’의 경제성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신칸트주의 영향 하에서(Hoyningen-Huene 1993, Patton 2021) 변하지 않는 ‘세계 자체’와 패러다임과 함께 변하는 ‘현상세계’를 구분한 쿤과 달리, 판네키는 현상세계가 곧 ‘세계 자체’이고, 그 세계에 인간이 개입해서 지식이라는 산물을 얻어내는 노동활동이 과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레닌은 “물질이란 인간의 감각에 의해 주어지고, 우리의 감각에 의해 복사되고 촬영되고 모사되지만, 그것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를 표현하기 위한 철학적 범주”이며, 그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앙주의(fidélism)”라고 비판한다. 판네키크는 여기에서 종교와 신학에 대해 투쟁하기 위해 과학적 개념의 실재성을 주장한 18-19세기의 자연과학적 중간계급 유물론과의 동형을 읽어낸다. 레닌이 기대고자 하는 권위는 사실 그동안 발전을 거듭한 자연과학 그 자체라기보다, 자연과학적 속류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입장인 것이다. 판네키크는 전기·빛·에너지는 물질만큼 실재하는 것이지만 물질이 아니며, 오히려 물질 그 자체보다도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Pannekoek 1948: 60).

혹시 레닌이 말한 “물질”이라는 것이 판네키크이나 디츠겐이 정신을 부분으로서 포함하는 총체로서의 물질적 현상계를 의미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물질”인가? 그렇지 않다. 레닌은 디츠겐이 “물질이라는 개념을 현실의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능력, 또는 설명능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아주 잘못된 구절”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이다(Lenin 1988a: 262). 판네키크는 마흐에게서 디츠겐과 비슷한 부분은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레닌은 디츠겐과 마흐가 겹치는 부분은 디츠겐이 마르크스로부터 이탈한 오류이므로, “유물론자 디츠겐”으로부터 “명칭이 디츠겐”을 분리해서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Lenin 1988a: 264-265). 이로써 판네키크는 확신할 수 있다. 레닌의 “물질”은 디츠겐의 “물질”이 아니고, 레닌의 “유물론”은 중간계급 유물론의 물역사성을 지양하던 디츠겐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니며, 오히려 디츠겐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판 대상인 중간계급 유물론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레닌이 사용하는 “신앙주의”라는 표현, 그리고 마흐를 “신학자”들과 한 편으로 묶는 데서 드러나는 종교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을 통해 더욱 방증된다.

판네키크는 여기서 놀라운 결론으로 비약하는데, 레닌에게서 나타나는 반종교적 성향, 중간계급 유물론이 러시아혁명의 성격마저 재규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판네키크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과거 서유럽의 절대주의 시대, 즉 청년 마르크스를 비롯한 유산계급 출신 지식인들이 군주정과 종교에 맞서 혁명을 꾀하던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자본주의 발달이 미비했기 때문에 유산시민계급이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못한 러시아에서 이러한 구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어야 할 중간계급은 인텔리겐차, 즉 지식계급이었기에,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절대왕정에 대한 투쟁의 이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Pannekoek 1948: 67-68). 그러므로 러시아혁명은 반종교적 지식계급이 노동계급을 물리력으로 이용해 반동 군주정을 타도하고 부르주아 유산시민 비슷한 무언가를 창출해낸 부르주아적 혁명이며, 그러므로 소련 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 불려야 마땅하다(Pannekoek 1948: 75).

4.3. 정신노동의 도구를 생산하는 정신노동으로서의 과학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 유산계급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려 한 19세기 중반의 속류 유물론을 비판한 디츠겐의 저술은 판네킵에게 자연과학적 지식이 유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현상일 뿐, 반드시 영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유산계급 또는 중간계급 출신성분을 가진 자연과학자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과학이 작동하여 지식이 생산되는 실제의 방식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디츠겐은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자연에 실재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디츠겐은 실재하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발견”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현상에 인간의 정신노동이 개입하여 지식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해방세상의 실현은 과학의 실천에 대한 유산계급적 허위의식의 타파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허위의식이 타파되면 자연과학이 유산계급의 무기로 이용되는 것 역시 종지부가 찍힐 것이다.

디츠겐은 19세기 당대의 과학자들이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사이의 올바른 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즉 자연세계의 현상과 그로부터 이끌어낸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여전히 18세기의 기계론적 유물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속류 유물론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비판을 수행했다(Dietzgen 1906b: 299-313). 디츠겐은 『철학의 실증적 성과』에서 세계는 연속적인 현상들의 “그라데이션”(즉, 스펙트럼)이며, 물질과 정신은 모두 “동일한 일원론적 속(genus)”, 즉 현상계의 다양한 변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Dietzgen 1906a: 369-375).

디츠겐은 『인간 두뇌노동의 본질』 서론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체계화(Systematisation)는 과학의 모든 활동의 본질이자 일반적인 표현이다. 과학은 오로지 우리의 이해를 통하여 세계의 대상을 질서와 체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훔볼트는 자신이 경험적 고찰, 즉 다양성으로써 균일성과 통일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물리적 연구에만 종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귀납적 과학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물들로부터 일반적인 의식과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 사변과학과 귀납과학의 차이는, 환상과 건전한 상식의 차이와 같다. 후자는 외부 세계와 경험의 도움을 받아 관념을 생산하는 반면, 환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그 산물을 얻는다.(Dietzgen 1906a: 47-54)

즉, 디츠겐이 말한 과학이란 연속적인 현상계의 특정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정신이 개입해서, 경험을 근거로 일반화된 개념들을 생산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밝히는 활동이라고 정리될 수 있었다.

판네텡은 『인간 두뇌노동의 본질』과 『철학의 실증적 성과』의 합본 영어판(Dietzgen 1906a)이 출간되었을 때 써 준 권두 서문에서 “지배

적인 부르주아지 신념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으로써 처음 제시했다. 그 철학적 기저를 여기서 디츠겐이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다(Pannekoek 1902).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성격을 둘러싼 1900년대 논쟁에 참여할 때 판네키크는 디츠겐에게 강하게 매료된 상태였고, “과학”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견해와 논술도 디츠겐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30년대에 레닌을 비판할 때도 판네키크는 그라데이션, 즉 스펙트럼의 원리를 이용했다. 이 그라데이션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디츠겐이 『철학의 실증적 성과』에서 제시한 개념(Dietzgen 1906a: 369-375)을 적절한 은유가 될 수 있는 사례들로 상술한 것이다.

변증법적 사고에서, 정신은 단순히 우리가 정신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현상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러므로 가장 하등한 동물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 너머에까지 미칠 수 없다. 그 너머로 내려가면 생명의 형상이 더욱 단순해짐에 따라 정신적 현상이라는 것들이 점차로 사라져 한낱 감도(感度, sensibility)만 남게 되므로, 정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문스러워진다. 실존하는 질적 특성이자 별개의 무언가로서의 “정신”은, 거기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거기에는 실존하지 않는다(Pannekoek 1948: 21).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고, 그 과정에서 뇌용적을 비롯한 양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과 동물의 정신은 질적으로 같지 않다.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도 그것은 질적으로 같지 않다. 점점 “하등”한 생물로 내려가다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것밖에 토해내지 못하는 미생물에 도달한다. 이런 단계의 생물에게 “정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신은 어느 생물에서부터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정신”이란 연속적인 천이(transition)들로 이루어진 자연세계에서, 인간이 “정신적인 것”으로 인식한 특정한 현상들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부여한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그보다도 작아서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로 이행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단백질 고분자에 도달한다. 여기서부터는 화학의 영역에 떨어지는 대상이다. 이 연속선상에서, 어디서부터 생물이 끝나고 무생물이 시작되는지는 결정될 수 없다. 현상은 점진적으로 단순화되어, 유사성을 보존하지만 아주 다른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자연이 경계선을 모른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생명”이라는 질적 조건은, 제시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연에 실존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생명이란 단지 하나의 이름, 무한히 다양한 생명 현상의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형성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Pannekoek 1948: 21, 강조는 인용자).

즉, 명백한 생물과 명백한 무생물의 사이의 간극은 연속적인 현상들의 스펙트럼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스펙트럼 위의 특정한 지점에 기준을 정해서 경계를 그을 수 있다. 예컨대, “뇌가 있는 생물은 정신이 있다”거나, “스스로 생식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생명이 없다”고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인위적인 것이며, 자연에 원래부터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 짓는 개념을 실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이며, 그것이 바로 “정신노동(mental Labour)”이다. 같은 원리로, 물질 · 에너지 · 전기 · 중력 · 엔트로피 · 에테르 · 원자 같은 개념들도 그 자체로 원래부터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판네킵에 따르면 그런 개념들이 그 자체로 자연에 실재하면서 인간의 발견을 기다리는 것으로 취급하는 입장은 비역사적인 중간계급 유물론이다. 판네킵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식론은, 과학적 개념을 과학자들의 “노동”으로서 생산된 “산물(product)”로 보는 것이다(Pannekoek 1948: 19).

특히 그중에서도 원자와 에테르는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이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만 추론된 것이라는 점에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수정되고 때로는 버려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판네킵

죽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적절한 예시였다. 원자가 전자·양성자·중성자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원자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원자론의 원자와 같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소립자까지 분해된 물질은 확률과동이라는 비직관적이고 난해한 것으로 표상되었고, 동시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정해진 양이었던 질량은 상대성이론에 의해 에너지와 명확히 나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물리학자들 스스로가 “모형과 상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론의 진실성이란 수식이 정확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Pannekoek 1948: 26-28).

판네키크는 상대성이론이 발표되기 반세기 전에 디츠겐이 이미 에테르의 실재를 부정했음을 언급한다. 『철학자로서의 레닌』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 출전은 『인간 두뇌노동의 본질』 제3장이다. 디츠겐과 동시대인으로서 세포설을 제창한 식물학자 마티야스 야코프 쉐라이덴(Matthias Jakob Schleiden)은 「눈과 현미경」(“Das Auge und das Mikroskop”)이라는 글에서 빛의 실제의 본질은 에테르로 충만한 공간을 주파하는 파동이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과 색은 오로지 겉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디츠겐은 이에 대하여 오히려 빛깔이야말로 현실이고, 에테르의 진동은 그 현상으로부터 인간 정신이 구성해낸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했다(Dietzgen 1906a: 80-103, Pannekoek 1948: 25). 판네키크이 여기서 평가하는 디츠겐의 탁견은 에테르라는 ‘틀린 과학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점이 아니다. ‘과학이론’ 그 자체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그려낸 추상화이지 실제 그 자체가 아님을 주장했다는 점을 높이 산 것이다.

디츠겐의 인식론은 자연과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을 포함한 “귀납적 과학”을 하나로 묶고, 그 과학들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추상적 개념을 산물(product)로 생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정의한 바(Marx 2001: 235-236)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간이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합목적적(合目的的) 의지”가 요구되는 활동이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현상들로

충만한 자연, 즉 외부 세계로부터, 의식적인 정신활동을 통해 지식이라는 인위적 산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은 이 정의에 미루어 보아 하나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츠겐은 두뇌노동(brainwork)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판네크는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보다 명확하게 “(과학)노동의 실천(practice of (scientific) labour)”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과학의 산물은 지식이 되, 과학이라는 활동 그 자체는 노동이다.

과학노동은 그 산물로서 다양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물질”이나 “시간”, “공간” 같은 가장 친숙한 개념들조차 인위적인 생산의 산물이다), 그 가운데서도 자연법칙은 “도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지식이다. 육체노동에서의 노동도구가 노동의 난이도와 필요량을 경감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듯이, 정신노동에서 규칙성은 생각해야 하는 사고량과 시간을 경제적으로 단축해준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규칙성은 단순하고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과학에서의 자연법칙들에 이른다. 이는 마치 노동도구가 가장 간단한 수작업 도구에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복잡한 기계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것에도 유비할 수 있다.

디츠겐의 비판 대상들을 고려해 볼 때, 디츠겐 인식론의 의도는 자기 당대의 관념론과 기계적·자연과학적 유물론을 동시에 지양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과학적”이기 위한 조건은 우선 인간의 외부에 실재하는 구체적 현상으로 가득한 세계로부터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유물론이고, 또한 그 정보를 의식적으로 추상화·개념화하는 두뇌노동의 상호구성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변증법적이다. 그 정신노동을 거치고 다시 바라본 구체적 현상은 일반화된 추상으로서의 법칙성을 통해 재생산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서설』(1902년 발표)에서 이야기한 “경제학의 방법”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상향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정신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것으로 재생산

하기 위한 사유의 양식일 뿐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 자체의 성립 과정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가장 단순한 경제학적 범주, 예컨대 교환가치는 인구, 특정한 제관계 속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구를 상정하고 특정한 가족이나 공동체나 국가 등을 상정하고 있다. 교환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는 구체적인 살아 있는 전체의 추상적·일반적 관계로서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의식에 있어서는 제범주의 운동이 실제적인 생산행위로서 나타나며 그 결과가 세계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총체가 사유에 의해 만들어진 총체로서, 사유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구체물로서 사실상 사유의 산물이며 개념행위의 산물인 한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관과 표상의 바깥에, 또한 이것을 뛰어넘어 사유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산출하는 개념의 산물이 결코 아니며 직관과 표상을 개념에 의하여 가공한 산물이다.(Marx 1988: 222- 223)

판네킣이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마흐의 사유경제성 개념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 역시 이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향으로의 진화만 발전이 아니다. 같은 현상을 똑같이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이라면, 요구되는 정신노동을 경감한다는 면에서 간단한 법칙 쪽이 보다 유용한 도구이다. 판네킣이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레닌을 비판할 때, 코페르니쿠스설과 프톨레마이오스설의 경쟁을 사례로 들면서 코페르니쿠스설이 “더 진실”인 이유를 설명한 근거도 이와 같다. 이런 점에서 판네킣은 과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보지만, 과학적 지식 그 자체 대한 입장은 도구주의적이다. 판네킣은 명시적으로 과학에서의 이론과 법칙은 “물질적 도구 옆에 서 있는 정신적 도구”라고 말한다(Pannekoek 1948: 17).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그는 이론적 지식을 정신노동의 노동도구로서 생각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동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노동과정이 곧 과학활동의 실천이다. 이렇게 과학이 노동으로 개념화되면, 그것을 수행하는 과학자는 노동자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4.4. 소결

판네킨이 쓴 『철학자로서의 레닌』은 전문 과학자인 저자가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적으로 바람직한 과학에 대한 인식론, 즉 과학철학을 설명하고, 그 기준을 소련에서 경전화된 레닌의 철학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의 비판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레닌 및 그를 계승한 소련의 공산주의 노선의 정당성을 비판하겠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판네킨이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는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서방 언어들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소련의 지도를 받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책을 다른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당시의 상황이었다.

판네킨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검토하고, 마흐에 대한 레닌의 비판이 상당 부분 잘못된 근거에서 제기된 것이며, 또한 레닌이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당시의 과학적 동향에 무지했고, 그럼에도 낡은 자연과학 이론의 소박한 실재론에 근거하여 마흐를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연과학의 개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적 구성물이 아닌 그 자체로 실재하는 실체로 간주할 수 없음을 생물과 무생물의 스펙트럼, 프톨레마이오스설과 코페르니쿠스설의 경쟁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자연과학의 개념 그 자체를 실체로 간주하는 것은 19세기 중간계급 유물론의 태도라는 이유로 판네킨은 레닌에 대하여 중간계급 유물론자라는 혐의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레닌이 지도한 러시아혁명은 서유럽에서의 부르주아 유산시민 혁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판네킨은 자연과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는 입장을 큰 축으로 삼아서 자신의 논지를 만들어나갔다. 그 입장은 디츠겐의 인식론 철학이었다.

판네킨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정치경제학 및 관념론 철학과의 투쟁에 기여한 바에 비하여, 자연과학적 중간계급 유물론에 대한 투쟁에는 소홀했다고 생각했고, 디츠겐에게서 그 문제의 보완을 찾았다. 디츠겐은

자연과학을 근거로 삼아 유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간계급 유물론과 투쟁하기 위해 과학과 지식에 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을 고안했다. 디즈겐은 과학의 본질은 구체적 현상들을 체계화하여 추상적 개념들을 생산하는 두뇌노동 또는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물질적 세계에 실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이며, 과학적 개념들은, 그것이 설사 “물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이 아니라 추상이다. 실제의 자연에는 그러한 개념들이 저절로 실존하며 과학자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자가 자연에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즉 노동하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이자 사회주의 혁명운동가였던 안톤 판네쿱의 저술들을 검토하여 그의 과학사상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노동으로서의 과학관을 밝히고, 그 관점을 그것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 천문학과 사회주의 운동 양측의 분야에서 판네쿱이 각각 참여한 실천과 관계지어 분석하였다. 판네쿱의 과학관은 과학자로서의 그 한 개인의 견해를 넘어, ‘과학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과 정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논쟁들이 오가던 거대한 시대적 담론의 일부였다. 이 점에 판네쿱의 과학사상을 살펴보는 의의가 있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 사이는 천문학계와 국제사회주의 운동권 양측에서 모두 논쟁이 벌어지던 시대였으며, 이 논쟁들은 과학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들이 형성되던 보다 넓은 지식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또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 판네쿱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그리고 천문학자로서 자신의 과학관을 형성했고, 또한 그 과학관에 근거하여 논쟁에 참여했다. 그것은 이 논쟁들이 “과학”의 성격이 무엇이고 또 과학지식을 가진 과학자-지식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냐는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천문학계에서는 뉴턴역학을 도구로 천체의 위치와 운동을 계산하는 것에 만족하는 고전천문학으로부터, 천체를 물성을 가진 물리적 대상으로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대천문학으로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다. 구세대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이 역학적으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가장 순수한 과학이라고 생각했다. 판네쿱을 비롯한 신세대 천문학자들은 다른 분야의 과학 지식, 특히 분광학을 천문학에 도입해서 새로운 지식과 법칙을 창출하고자 했다. 후자의 연구프로그램이 오늘날의 천체물리학이며, 결국 경쟁에서 천체물리학이 승리해서 오늘날의 천문학 연구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것은 천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연구목표가 무엇이고

방법론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교체된 것이므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환은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동시적인 발전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각국 천문학계에서 천체물리학 혁명의 진전 속도는 신세대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학계 권력의 핵심부에 일찍 진출했는지, 특히 인사권을 장악한 천문대장 자리를 누가 쥐었는지에 따라 판연히 달랐다. 판네키의 나라인 네덜란드는 1920년대가 거의 가까워진 제1차 세계대전 말엽에야 세대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상당히 진전이 늦은 편이었고, 청년기의 판네키는 보수파 천문대장 밑에서 보람 없는 연구생활을 보내야 했다.

동시기에 판네키는 요제프 디츠겐의 철학을 접하고 마르크스주의자로 전향했는데, 디츠겐 철학의 과학철학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전향 자체가 천문학자로서의 판네키의 실천과 결부되어 생각될 필요가 있다. 디츠겐은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연속적이고 변화무쌍한 현상계에 인간의 노동력이 개입해서 만들어낸 산물로 개념화했고, 판네키는 디츠겐의 견해를 계승하여 과학을 지식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노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판네키에게 과학이란, 연속적인 현상계에 인간의 정신노동이 개입하여 정신노동의 노동도구인 과학적 지식을 인위적 산물로서 생산해내는 정신노동이었다. 마치 공작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기계이듯이, 과학은 정신노동의 도구인 과학지식을 만들어내는 정신노동인 것이다. 그런데 과학이 노동이라면, 노동도구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듯이 과학지식이라는 정신노동도구 역시 끊임없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 노동도구를 만드는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의의이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미신”을 추방하는 과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판네키는 끊임없이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기를 추구하는(또는, 판네키의 정신세계에서는 새로운 법칙을 ‘생산해내기를’ 추구하는) 천체물리학 프로그램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디츠겐 철학이 판네크에게 제공해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은 자연과학의 자본친화성과 과학자들의 정치적 보수성을 비판할 수 있는 ‘중간계급 유물론’ 개념과 그 논리였다. 자연과학이 중간계급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자연과학이 자본제적 대공장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 발전의 기저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자연현상에 대한 미신적 설명을 제공하던 종교적 권위를 해체하는 봉건계급에 대한 중간계급의 투쟁의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및 디츠겐과 동시대의 일부 자연과학자·철학자들은 인간 사회의 문제를 자연과학으로 환원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중간계급 유물론’의 중요한 특징은 과학적 개념·법칙과 같은 지식을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 그리고 과학(과 과학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과학과 과학자의 인식론적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판네크는 과학을 하나의 노동으로, 과학적 지식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노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개념화함으로써 과학지식의 권위를 상대화했다. 그리함으로써 판네크는 자연과학을 혐오스러운 자본주의로부터 분리하고, 자연과학과 마르크스주의를 정당하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다윈주의와 같은 ‘중간계급 유물론’ 과학관을 비판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과학관 및 과학자 정체성과 결부되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관을 가지고 판네크는 제2인터내셔널 국제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던 독일로 갔고, 독일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진행되던 중요한 논쟁들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논쟁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성격과 그 ‘과학’을 담지하는 지식인의 위치를 둘러싸고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제2인터내셔널 시대에 진행된 논쟁들에서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혁명의 필연성을 부정하고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제안한 수정주의 입장이었다. 수정주의는 마르크스가 혁명과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방법론을 부정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추구할 만하다는 칸트주의 관념론에서 자신들의 근거를 찾았다. 두 번째는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을 지켜내고자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의 결정론적 측면을 극대화한 중앙파 입장이었다. 당시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 입장은 노동자 대중의 실천성을 도외시하고 조직보위를 위해 정치과업을 비롯한 대중의 급진화를 단속하는 대기주의로 귀결되었다. 세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 즉 혁명의 필연성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 혁명적 정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당내 좌파의 입장이었다. 수정주의 논쟁 및 대중과업 논쟁의 지형에서 세 번째 입장에 속했던 판네텡 역시 같은 과제를 공유했다.

당시에 수정주의자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이 도래할 정세가 관측되지 않고, 오히려 마르크스의 예측과 반하는 경험적 증거들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고(또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윤리적 우위에 기반한 사회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네텡은 디츠겐의 과학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여, 마르크스주의와 자연과학은 현상으로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체계화하는 정신노동 행위라는 본질적 특성을 같이한다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그는 수정주의자들이 경험적 증거가 부재하다고 비판한 변증법적 유물론이야말로 과학의 진정한 기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판네텡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상대화했던 것과 같이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에서의 이론과 전략 또한 상대화했고, 이를 통해 대중과업 논쟁에서 카우츠키를 비판하고 노동자 대중의 실천적 자발성을 옹호했다. 카우츠키는 대중의 기회주의를 경고하며 이론적 지도성을 가진 지식인이 대중에게 올바른 지식과 의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과학계에 만연한 지적 엘리트주의를 연상시키는 것이었고,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극복해야 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판네텡은 과학의 연구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실천으로 변화무쌍한 사회를 다루는 사회과학은 더욱 그러할진대, 그것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카우츠키의 중앙파 노선은 바람직한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니라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유물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과 같이 요약되는 판네킵의 과학관은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천문학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던 1890년대부터 『철학자로서의 레닌』 영어판을 출간한 1940년대까지 꾸준히 일관되었다. 이것은 『철학자로서의 레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1907년 글인 「사회주의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방증된다.

판네킵은 근대과학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불가분하게 탄생했음을 지적하였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의 실천을 노동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과학의 인지적 가치를 자본주의로부터 분리해냈다. 이것이 판네킵의 과학사상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포함한, 당대 지식사회의 “과학이란 무엇이나”에 대한 담론 지형에서 가장 급진적인 입장에 속했다.

판네킵의 과학관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과학지식의 위상을 상대화한다는 것이다. 과학지식이 절대화될 수 없으므로, 특히 자연과학적 지식을 인간사에 환원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당성을 잃는다. 이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사회다윈주의와 같은 형식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차단할 뿐 아니라,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정치적·이념적 공격, 리센코주의로부터 자연과학을 방어하는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없는 자연과학적 지식과 이론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행위는 그것에 정치적 함의를 부여하고자 하는 중간계급 유물론적 과학관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네킵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이러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과학지식의 특권화·신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판네킵 그 자신을 포함한 과학자들은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주체적인 위치를 얻을 수 있다. 판네킵은 이러한 바람직한 과학관을 가진 존재, 과학노동(scientific labour)에 종사하는 과학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졌고,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다른 과학자·지식인들을 비판할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판넬쿡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 디츠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판넬쿡과 디츠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즉 디츠겐의 사상을 판넬쿡이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츠겐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과학관 및 정치적 실천은 판넬쿡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또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판넬쿡의 글을 몇 차례 영어로 번역해 주었던 에르네스트 운터만(Ernest Untermann)은 독일 출신으로 베를린대학교에서 고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도 디츠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정치적으로 급진화된 판넬쿡과 반대로 카우츠키에 대한 지지를 고수하다 완전히 온건화되었다. 이런 차이는 판넬쿡의 사상과 실천이 디츠겐 사상의 유일한 귀결이 아니고, 판넬쿡과 운터만이 각자의 맥락에서 각자의 ‘정신노동’으로 그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을 것임을 시사한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의 과학적 실천과 과학관을 판넬쿡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디츠겐의 계승자라는 점에서 판넬쿡의 과학관은 디츠겐을 비판적으로 지양한 레닌을 계승한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과학”의 특징과는 다르다. 레닌과 소련 중심의 사상사 흐름에서 거리를 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과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판넬쿡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참 고 문 헌

1차 문헌

Dietzgen, Josef (1906a), *The Positive Outcome of Philosophy: The Nature of Human Brain Work; Letters on Logic; The Positive Outcome of Philosophy*, Translated by Max Beer & Ernest Untermann,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_____ (1906b), *Some of the philosophical essays on socialism and science, religion, ethics, critique-of-reason, and the world-at-large*, Translated by Theodore Rothstein,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Engels, Friedrich (1987a),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Translated by 양재혁, 돌베개.

_____ (1989), 『자연의 변증법』, Translated by 황태호, 도서출판 전진.

Kautsky, Karl (1910), *The Class Struggle*, Translated by William Edward Bohn,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_____ (1911), "Die Aktion der Masse", *Die Neue Zeit*, Jahr. 30, 1. Bd., H. 2, pp. 43 - 9, H. 3 pp. 77 - 84, H. 4 pp. 106 - 17.

_____ (1912), "Die neue Taktik", *Die Neue Zeit*, Jahr. 30, 2. Bd., H. 44 pp. 654 - 64, H. 45 pp. 688 - 98, H. 46 pp. 723 - 33.

Keeler, James E. (1897), "The Importance of Astrophysical Research and the Relation of Astrophysics to Other Physical Sciences", *Astrophysical Journal*, vol. 6, p. 271-288.

Kuhn, Thomas (2016), 『코페르니쿠스 혁명: 행성 천문학과 서구 사상의 발전』, translated by 정동욱, 지식을만드는지식.

- Lenin, Vladimir (1988a),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Translated by 정광희, 도서출판 아침.
- _____ (1988b),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운동의 긴급한 문제』, Translated by 김민호, 도서출판 백두.
- Marx, Karl (1944), "Karl Marx on Herr Vogt: Timely Excerpts from a Classic(1860)", *The New International*, Vol. X No. 8, August 1944, pp. 257 - 260.
- _____ (1988),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Translated by 김호균, 중원문화.
- _____ (2001),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I(상)』 제2개정판, Translated by 김수행, 비봉출판사.
- Pannekoek, Anton (1901), "De filosofie van Kant en het marxisme", *De Nieuwe Tijd*, 6e jrg., Amsterdam 1901, pp. 549-564, 605-620 en 669-688.
- _____ (1902), "The Position and Significance of J. Dietzgen's Philosophical Works", in Josef Dietzgen(1906a), *The Nature of Human Brain Work, in The Positive Outcome of Philosophy: The Nature of Human Brain Work; Letters on Logic; The Positive Outcome of Philosophy*, Translated by Max Beer & Ernest Untermann,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 _____ (1903), "Über die Erscheinungen, welche bei einer Sternbedeckung durch einen Planeten auftreten", *Astronomische Nachrichten*, volume 164, Issue 1, p.5. Bibcode: 1903AN....164....5P
- _____ (1905), "Einige Bemerkungen über die Helligkeit von Saturn", *Astronomische Nachrichten*, volume 167, Issue 22, p.363. Bibcode: 1905AN....167..363P
- _____ (1906a), "The luminosity of stars of different types of spectrum", Koninklijke Nederlandsche Akademie van

Wetenschappen Proceedings, vol. 9, iss. 1, p.134-148, Bibcode: 1906KNAB....9..134P

_____ (1906b),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tra and the colours of the stars", Koninklijke Nederlandsche Akademie van Wetenschappen Proceedings, vol. 9, iss. 1, p.292-302 Bibcode: 1906KNAB....9..292P

_____ (1907a) "Systematische Differenzen zwischen den photometrischen Katalogen von Potsdam und Cambridge", *Astronomische Nachrichten*, volume 174, Issue 10, p.151. Bibcode: 1907AN....174..151P

_____ (1907b),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chool in Berlin", *The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new York, Vol. VIII, No. 6(December 1907), pp. 820-824.

_____ (1907c), "Socialism and Religion",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new York, Vol. VII,(March 1907) Translated by Ernest Untermann.

_____ (1909a), "Naturverwüstung," *Zeitungskorrespondenz*, no. 75.

_____ (1909b), "The New Middle Class",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vol. 10, no. 4, pages 316-326, Translated by William Edward Bohn.

_____ (1912a), "Massenaktion und Revolution", *Die Neue Zeit* 30(41-43): 541-550, 585-593, 609-616.

_____ (1912b), "Marxistische Theorie und revolutionäre Taktik", *Die Neue Zeit*, XXXI, No 1, Translated by D. A. Smart(1978); in *Pannekoek and Gorter's Marxism*, Pluto Press.

_____ (1912c), *Marxism And Darwinism*, Translated by Nathan Weiser, Chicago: Charles H. Kerr & Company.

_____ (1915), "Der Marxismus als Tat", *Lichtstrahlen*, nr. 2, März 1915, pp. 99 - 102.

- _____ (1917), "The Third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Vol. XVII, No. 8, February 1917, pp. 460-462.
- _____ (1948), *Lenin as Philosopher: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hilosophical Basis of Leninism*, Translated by Anton Pannekoek. New York: New Essays.
- Plekhanov, Georgi (1976a), "Materialism or Kantianism", *Selected Philosophical Works*, Volume 2, Moscow: Progress Publishers, pp 398-414.
- _____ (1976b), "On A. Pannekoek's Pamphlet", *Selected Philosophical Works*, Volume 3, Moscow: Progress Publishers, pp 93-97.
- _____ (1976c), "Joseph Dietzgen", *Selected Philosophical Works*, Volume 3, Moscow: Progress Publishers, pp 100-116.

2차문헌

- Baneke, David (2019), "Pannekoek's One Revolution: Anton Pannekoek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Dutch Astronomical Community"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87-108.
- Biagioli Francesca (2016), "Helmholtz's Relationship to Kant", in *Space, Number, and Geometry from Helmholtz to Cassirer*, Springer. pp. 1-21.
- Bourrinet, Philippe (2017), *The Dutch and German Communist Left(1900 - 68): 'Neither Lenin nor Trotsky nor Stalin!' - 'All Workers Must Think for Themselves!'*, Brill.
- Burns, Tony (2002), "Joseph Dietzgen and the History of Marxism",

- Science & Society*, Vol. 66, No. 2, pp. 202–227
- Graham, Loren R (1985), "The Socio-Political Roots of Boris Hessen: Soviet Marx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5, No. 4(Nov., 1985), pp. 705–722.
- Gorman, David (1991), "Joseph Dietzgen", *Radical Chains: communist anticipations*, no.3. 1991–1992. 52.
- Gorman, Robert A. (1981), "Empirical Marxism", *History and Theory*, Vol. 20, No. 4, Beiheft 20: Studies in Marxist Historical Theory, pp. 403–423
- Hoyningen-Huene, Paul (1993), *Reconstructing Scientific Revolutions: Thomas S. Kuhn's Philosophy of Science*, translated by Alexander T. Levin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tchell, Ian (1978), "Marxism and German scientific materialism", *Annals of Science*, 35:4, pp. 379–400,
- Patton, Lydia (2021), "Kuhn's Kantian Dimensions", In K. Brad Wray (ed.), *Interpreting Ku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44.
- Raflerty, Catherine (1990), "Karl Kautsky — Between Darwin and Marx",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Vol. 36, no 3, pp. 377–387.
- Smith, Robert W. (2019), "Astronomy in the Time of Pannekoek and Pannekoek as an Astronomer of his Times"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109–136.
- Tai Chaokang (2019), "The Milky Way as Optical Phenomenon: Perception and Photography in the Drawings of Anton Pannekoek"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 Press, pp. 219-248.
- Tucker, Jennifer (2019), "Popularizing the Cosmos: Pedagogies of Science and Society in Anton Pannekoek's Life and Work"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173-196.
- van Berkel, Klaas (2019), "Utopianism in Anton Pannekoek's Socialism and Astronomy"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75-86.
- van den Heuvel, Edward P. J. (2019), "Anton Pannekoek's Astronomy in Relation to his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Founding of the Astronomic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Amsterdam",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25-50.
- Voerman, Gerrit (2019), "Anton Pannekoek: A 'Principled Theorist'" In *Anton Pannekoek: Ways of Viewing Science and Society*, edited by Chaokang Tai, Bart van der Steen and Jeroen van Dongen (2019).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51-74.
- 고인석 (2010), 「에른스트 마하의 과학사상」,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no.36, pp. 281-311.
- 이상호 (2005),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한국노동연구원.
- 이인호 (1987), 「플레하노프와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초」, 『인문논총』, Vol.19, pp. 141-163.
- 이정인 (2012),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붉은글씨』 창간호, pp. 236-290.

Abstract

Astronomer Anton Pannekoek's View of Science as Labour

Yi Seung-joo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at an important part of the Dutch astronomer Anton Pannekoek's view of science was that regarding science as a labour, and scientific knowledge as a product of that labour, by focusing on Pannekoek's writings, including Lenin as Philosopher.

Inheriting Josef Dietzgen's epistemology, Pannekoek identified mental labour as the essence of scientific practice: the conscious intervention of the human mind into a world composed of a continuous and changing gradation of phenomena, producing abstract concepts, organizing those concepts, and revea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t the time Pannekoek adopted this view of science and also identified as a Marxist, he was a member of a emerging faction in Dutch astronomical community that supported the paradigm challenge of modern astrophysics against classical Astrometry, and Dietzgen's

philosophy was better suited to this purpose. The view of science established in the 1900s determined Pannekoek's position in the debates over the nature of scientific socialism, and made him possible to position himself as a natural scientist participating Marxist revolution. In all these aspects, the most important idea for Pannekoek was to relativize the autho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make humans subjects, by defining scientific knowledge as an artificial product of conscious mental labour.

keywords : Anton Pannekoek, Josef Dietzgen, Marxist view of science, Science and labour, Mental labour (6단어 이내)

Student Number : 2020-26171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쓰는 과정을 포함한 3년간의 석사과정 동안 체계 큰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통해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그 전보다 발전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신 이두갑 교수님께 가장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논문을 심사해 주신 임종태 교수님과 천현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논문제안서 단계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주신 임홍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드백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황교련 선배님, 배상희 선배님, 민병웅 선배님, 김나영 선배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들의 따뜻한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지 이은세, 동지 이일휘, 동지 이재현, 동지 이찬범, 동지 임채린, 동지 진영준을 비롯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동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들과 함께 섰기에 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회의를 떨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노동하는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